

# MAGAZINE

# Gunsan

People & Culture in Gunsan



9 772383 813003  
ISSN 2383-8132



\_\_\_ 군산아펜젤러·노블선교기념관 아펜젤러선교기념교회 임춘희 관장/목사  
\_\_\_ S뷰티아카데미 김지현 원장 \_\_\_ 군산시 청년플 안태욱 센터장  
\_\_\_ 세종대 수석합격, 고태은 양의 춤 이야기 \_\_\_ 군산 여성농업인이 만드는 마더소스  
\_\_\_ 카페 드르쿰다 현동부 대표 \_\_\_ 군산체력인증센터 \_\_\_ 허브 수채화 미술학원 원장 김성춘 작가





교육부 평가 최우수 대학  
**국립군산대학교**  
 KUNSAN NATIONAL UNIVERSITY  
 www.kunsan.ac.kr  
 전북 군산시 대학로 558



새로운 시각은 어디에서 올까요?  
 가능성은 어떻게 현실이 될까요?  
 미래가치의 동력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모든 것의 중심에 사람이 있음을 확신합니다

**사람으로 세상을 잇다**

사람을 키우는 대학  
 미래가치를 창조하는 융합교육 선도대학



**교육혁신의 선두!**

-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 '자율개선대학' 선정
- 국립대학육성사업 선정
- 고교교육기여대학지원사업 선정

**산학협력의 강자!**

- 사회맞춤형 산학협력선도대학 (LINC+) 육성사업 선정
- 산업계 관점 대학평가 4개 분야 최우수

**글로벌 인재의 요람!**

- 교육국제화역량인증대학 선정
- 대학일자리센터 사업 선정
- 신재생에너지사업(대형해상풍력 터빈 해상실증 기술 개발) 선정



**상상을 향해!  
 그 이상을 향해!**

**SHIDAO International Ferry**

P.S NEW SHIDAO PEARL / P.S GUNSAN PEARL  
**DAILY SERVICE**



석도국제훼리(주) [www.shidaoferry.com](http://www.shidaoferry.com)

군산 tel. 063-441-1200 fax. 063-441-1220  
 석도 tel. +86-631-728-6666 fax. +86-631-728-9399  
 서울 tel. 02-725-7811 fax. 02-725-1671  
 하역/운송사(주)제범 tel. 063-461-1803 fax. 063-461-1836



시민과 함께  
꿈을 실현해  
가겠습니다

시민이 함께하는  
자립도시 **군산**

시민이 직접 만들고  
모두가 행복한 이곳,  
바로 **군산**입니다



 **군산시**  
GUNSAN CITY

죽도 앞에서 모두가 평등하다



검도는 단순히 때리기 위한 운동이 아닙니다.

검도의 최종 목적은 인격형성을 추구하는 무도이기 때문에 기능 향상만을 위해 수련하지를 않습니다.

따라서 검선을 일치시킴으로써 자아를 발견하는,

무도적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는 체육이라 할 수 있습니다.

 **송지검도관**  
SONGJI KUMDO ACADEMY

관장\_진인하 7단

주소\_전북 군산시 미장안길 50-13 (미장동) 통큰타운 4동 301호

전화\_(063)466-7377 팩스\_(063)466-7377 이메일\_kumdojin77@naver.com

사진제공\_박진영



# 이제는 아이젠카에서!

군산지사장 이복  
010-5265-5061



아이젠카 견적 업체 이달의 **특가 상품 이벤트**입니다.

월렌트로 최저가 선언 취/등록세, 자동차세, 보험료 별도 납부 없음.

## 특가 상품은?

이번달 한달동안 업체에서 제공할수있는  
최저가 견적으로 판매하는 상품입니다.

특가 상품은 제조사 및 캐피탈사의 사정으로 인해 조기 마감될수있습니다.

### 아이젠카만의 차별화

1. "책임있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 계약 관리 팀 별도 운영
  - 계약이후 끝이 아닌 철저한 사후관리로 고객만족 실현
  - 민원 관련 고객센터 운영으로 고객서비스 실현
2. 월 납부로 최저가로 견적을 제공하겠습니다
  - 한개업체 견적이 아닌 복수 견적중 최저가 업체 견적을 비교 해드리겠습니다.
3. 아이젠카만의 서비스
  - 자동차 전문 상담인력 배치로 고객이 원하는 정확한 정보전달 제공
  - 질문을 남기시거나 문자서비스, 이메일 답변등을 통해서 고객님의 궁금하신 사항을 빠르게 확인하실수있습니다
4. 국내 렌트사 및 캐피탈사 제휴를 통해 최저가 차량만을 제공하고있습니다.
  - 10여개의 렌트사 및 20여개의 캐피탈을 통해 믿을수있는 다양한 차량들을 고객님의 맞춤 제공해 드리고있습니다
5. 차별화된 차량 비교검색



# 세상의 모든 보험!

최고의 전문가들이 궁금함에 답을 드립니다.

▼ 보험 미지급 건  
최준호 대표  
010-7467-7483

뇌질환, 심장질환  
자살  
기타 보험사 지급 거절 건

▼ 마루 노무사  
송충엽 소장  
010-4650-8236

산재 (수협산재) (과로사 등)  
노무관리  
4대 보험 관리

▼ 손해 사정사  
오창교  
010-4900-1010

개인 후유장애  
교통사고 보험금 산정  
암 진단 (D37.5진단 분쟁 등)  
일상배상 / 영업배상

▼ GA지사  
박남혜 대표  
010-2396-5635

보험 증권 분석 / 증권 관리  
보험 청구 / Solution  
상품 선택 조언  
보험보상전문상담



+ 소정운 변호사  
010-5400-3498

자동차 대인 사고  
장기(보장성)보험  
산재 / 근재



5년 이내 암 진단만 아니라면  
보험은 준비 할 수 있습니다.



GA지사 박남혜  
010-2396-5635

월10만원소비  
브랜드체인지  
+  
추천 2인

즐거운 소비가 소득으로 창출되는 라이프스타일!  
신뢰의 기업 교원과 든든한 미래준비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전화 한통으로 당신의 인생이 바뀔 수 있습니다.

단 두가지 조건으로  
평생 함께 할 부업을 만나세요.

www.theorm.kr  
군산 박남혜 010-2396-5635

KYO  
WON 교원





www.newgunsan.kr



# 새군산신문

NEW GUNSAN WEEKLY

새로운 시민의 대변자

**Add.** 전북 군산시 장미1길 27 장미빌딩

**Tel.** 063-445-4700

**Fax.** 063-442-3883

## 장미칼럼

### ‘코로나’ 이후, 지금부터 준비하자

삶의 무게가 이처럼 버겁게 느껴지긴 처음이다. 누구나 겪는 일상이 되었지만 누군가에게는 실직의 고통이 되었으며, 또 누군가에게는 사업을 접어야 하는 절망이 되었다. 사람들 사이가 시쳇말로 ‘절단’되었으며, 누구도 믿지 못하는 불신과 불안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사용자 입장도 난망하고 허망하기는 마찬가지이다. 어렵다 어렵다 하면서도 한 뼘 얼굴로 살아온 이 사회에서 차마 문 걸어 잠그지 못했던 사람들의 속은 이미 시꺼멓게 변했다.

가업도 지탱하기가 어려울 뻔더러 어쩌면 줄줄이 가게를 접어야 할지도 모른다. 근근이 이어가던 작은 사업장은 물론이거니와 크고 작은 음식점과 커피점, 숙박업소, 여행·운수업, 마트와 식료품점, 도소매업, 서비스업 등등이 줄줄이 사람 부재의 줄폭탄을 맞고 있다.

어제는 오랜만에 모 횃집에 예약 전화를 걸었다. 가까운 지인들과 저녁을 겸한 자리를 하기 위해서였다. 물론 거리낌이 살짝 없었던 건 아니지만 어땠다 싶었다.

한참만에 주인과 통화가 됐다. 대답은 ‘어제라도 전화를 주시지 이제 전화를 주느냐’였다. 지난주부터 문을 닫았다고 했다.

생물을 준비해야 하는 횃집의 특성상 어느 정도는 손님이 받쳐줘야 하는데 하루 한 두 팀도 어려웠다는 말이었다. 말끝에서 몇 명이지만 예약 손님을 받지 못하는 애절함이 고스란히 전해져 왔다.

위로의 말이라도 시원하게 건넬어야 하는데, ‘모두가 받는 고통이니 잘 이겨내시라’는 말로 대신했다. 일행들과 은파의 한 음식점으로 발길을 돌렸다.

10년째 성업을 했던 이 곳 또한 오늘의 한파가 비껴가진 못했다. 커다란 홀에 한 팀 그리고 우리가 전부였다. 주인아줌마의 한숨소리가 그대로 전해져 왔다.

나름 군산에서 말 한마디쯤 거들 정도는 되는 일행들의 얘기가 자연스럽게 ‘코로나’사태로 이어졌다.

자영업자들의 어려움과 종사자들의 대규모 실직으로 모두가 위기를 맞고 있다는 소리도 나왔고, 이 음식점과 같이 잘 나가던 곳 또한 오늘의 사태를 비껴가지 못했다. 체념 섞인 말도 따랐다. 주인아줌마는 직원들에게 ‘무급휴가’를 가라고 할 정도로 손님이 줄었다고 걱정이었다.

필자는 언론도 직격탄을 맞고 있어서 신문사가 존폐 위기라는 말도 했다. 내색은 하지 않았지만 광고와 구독, 협찬에 의존하는 언론사가 이 마당에 어디에다 손을 벌릴 수 있단 말인가.

그렇지만 세상을 돌아보니 유구무언이며, 아무리 배가 고프더라도 참아야 한다. 그게 언론이라고 믿으면서 말이다.

경기 부양을 위해 정부에서 추경을 한다는 소리도 있었지만 낮설게 들렸다. 군산시의 여러 가지 경기부양을 위한 시책에 대해서도 한마디씩 나왔다. 그 중에 솔깃해지는 말이 바로 취소나 연기된 대형 체육 행사에 책정된 예산 문제였다.

‘위민’을 숙명처럼 안고 살아야 하는 공직자들에게 부탁드린다. 삶이 팍팍하기는 당신들 또한 마찬가지이겠지만 코로나에 매몰되지 않기를 말이다.

고통 받는 시민들을 위해 한발 더 다가가려면 코로나 이후를 지금부터라도 준비해야 한다. 전국단위의 체육 문화 행사는 군산의 이미지를 높이기도 하였지만 지역 경기 부양이라는 효과를 거두어 왔다.

코로나가 가져다 준 사람들 사이의 거리두기와 심리적인 박탈감, 불신·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할 것인가. 연기 혹은 취소에 매몰되지 말고 미리미리 대책과 대안으로 예산이 사장되지 않게 준비하여 주기를 바란다.



편집장\_채명룡



## 구독문의

매거진군산은 월간지로서 자택에서 편하게 우편으로 받아보실 분께서는 **본 지 마지막페이지에 CMS 구독신청서**를 작성하셔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063)445-1856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입금처** 신한은행 110-180-087549  
**예금주** 이진우 (아이씨엠)

## 광고문의

매거진군산에 광고를 게재하고 싶으신 분께서는 광고 마케팅 담당자에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광고마케팅 부서** (063)445-1856

## 기사제보

주변의 즐거운 이야기와 흥미로운 인물 등을 매거진군산에 제보해 주십시오. 또한 저희 매거진군산과 편집의도와 방향이 어울린다면 누구나 자유기고가가 되실 수 있습니다. 좋은 글, 멋진 사진을 보내주세요.

282pyk@hanmail.net

## 매거진군산에 독자의견을 보내주세요.

매거진군산은 독자여러분의 의견을 소중히 생각합니다. 어떤의견이든 괜찮습니다. www.maggun.com의 독자의견에 올려주시거나 282pyk@hanmail.net에 이메일을 보내주세요. 채택되신 분들께는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리겠습니다.

## 맥군 후원 업체

- 오죽일식\_식사권 / 063-464-5625
- 발렌타인피자\_불고기피자 테이크아웃 / 063-442-4886
- 노가리&비어(수송점)\_세트안주 이용권 / 010-6542-5782
- 곰창이최고예요(수송점)\_곰창 1인분 이용권 / 050-7900-0803
- 도마(수송점)\_돼지한마리 세트 / 063-471-0023
- 바나나팩토리\_커피 음료권 / 063-452-9479
- 8월의크리스마스\_커피 음료권 / 010-8928-3481
- 소셜여행 커피샵\_커피 음료권 / 063-446-9466
- 달 커피샵\_커피 음료권 / 010-9548-3383
- 철길마을 우리문방구\_사진매직거울 / 010-3556-2564

매거진군산에서 독자들에게 제공하는 상품을 협찬하시고 싶은 업체는 연락 바랍니다.

## <맥군의 오타를 잡아라!>

맥군의 오타자를 찾아 주시는 분께 추첨을 통해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이메일이나 팩스로 연락처와 주소를 기재하여 보내주시십시오.

**E-mail** 282pyk@hanmail.net **Fax** 063) 446-1856



## Vol.108 | 2020.03



발행인	이진우	jay0810@hanmail.net
편집장	채명룡	ml7614@naver.com
디자인	박유경	282pyk@hanmail.net
	이경호	kyungho159@naver.com
주간	오성렬	poi3275@naver.com
편집위원	장인수	isj1453@nate.com
편집위원	김혜진	kimhyejin0324@hanmail.net
편집위원	박정숙	njpcslife@gmail.com
편집위원	이현웅	gunsanmusic@daum.net
편집위원	김정인	jbct20102@jbct.or.kr
컬럼니스트	이복	bok9353@hanmail.net
컬럼니스트	남대진	bitsori454@daum.net
컬럼니스트	은승조	gsforum@hanmail.net

**제작** ICM (063)445-1856  
**주소** 전북 군산시 큰샘길 1  
**출판신고번호** 467-2011-000002  
**인쇄** 진영인쇄 (063)446-7801  
**온라인** 웹닉스 (063)453-5430

매거진군산은 www.maggun.com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매거진군산에 실린 글과 사진은 사전 허락 없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매거진군산은 한국도서잡지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기타간행물사업 신고 번호\_군산 라 00007 / 매거진군산은 군산사람들과 군산의 라이프스타일을 코디해주는 오직 군산사람들을 위한 잡지입니다.

아이와 어른을 위한  
 신재순 시인의 동시로 건네는 안부\_13

## 영주대장간 호미가 유명한 까닭

송명원

호미만 만들었으께

잠자는 시간 빼고는 호미만 만들었으께

일 년 내내 하루도 안 쉬고 만들었으께

거진 오십 년 넘게 만들었으께

호미 만드는 것밖에 몰랐으니까

앞으로 죽을 때까지 호미만 만들 꺼니까

<동시마중> 1·2월호

동심을 노래한 시 중 어린이가 쓴 시를 어린이시라고 하고 어린이시와 구별지어 어른이 쓴 시는 동시라고 합니다. 여기 어른이 되고 싶은 아이와 아이가 되고 싶은 어른이 함께 읽으면 좋을 동시를 전합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안부를 건넵니다. 편안하십니까. 그리고 부디 편안하시길요.

가끔 우리는 어느 분야의 대가들에게 묻습니다. 비법이 무엇인가? 하고요. 사실 그 질문은 뭔가 내가 모르는 빨리 가는 지름길을 알고 싶은 게 아닐까요. 더 쉽게 말하면 꿈수같은 거요. 하지만 영주대장간에서 호미를 만드는 분은 뭐 특별한 비법이 없어 보입니다. 그저 진솔하게 한 길 가는 거지요. 이것 저것 묻지 않고요. 그저 주어진 길 가는 거지요.

신재순  
 시인 / 한국동시문학회, 전북작가회의 회원





## 군산 아펜젤러 노블선교기념관

아펜젤러선교기념교회  
임춘희 관장/목사

글 | 오성렬(主幹)  
poi3275@naver.com

“아무도 밟지 않은 특 트인 바다 밑 모지,  
많은 사람들이 함께 묻힌 무덤 속에  
헨리 게르하르트 아펜젤러는 잠들어 있다.  
그는 그의 품에 영혼을 안고 천국에 들어갔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를 놀라게 한 것은  
큰 소리나 대포의 연기가 아니며,  
폭풍 위의 거친 숨결도 천둥도 아니다.  
다만 고요하고 작은 목소리 그리스도의 목소리 뿐”

-아펜젤러 순직 기념비에서-





지금으로부터 135년 전인 1885년 부활절, 불과 27세의 나이에 복음을 들고 이 땅에 찾아온 한국 감리교 최초의 선교사 H.G.아펜젤러. 그의 나이 44세 되던 해(1902), 인천에서 출발하여 목포의 성서번역자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타고 가던 배는 군산앞바다에서 일본 선박과 충돌하면서 침몰했다. 당시 조난당한 배에서 구조된 미국 광산업자 보울비에 따르면 “아펜젤러 선교사는 탈출할 시간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맨 아래 칸 3등 선실에 있던 한국인 조수와 이화학당 여학생을 구하려고 내려갔다 죽음을 맞았다”고 회고했다.

1997년도 군산시 내초동 아펜젤러선교기념교회(구 내초교회 1972~1990)에 부임한 임춘희 목사가 아펜젤러기념관 건립에 뜻을 품은 것은 아펜젤러의 일대기를 알고 난 후 깊은 감명을 받았기 때문이다. 대원군의 쇄국 정책으로 선진문물의 도래가 막히던 구한말, 미국 감리교 선교사였던 아펜젤러 부부는 1885년 4월5일 인천 제물포 앞바다로 한국 땅을 밟았다. 낯선 이방인의 나라에 도착한 자리에서 아펜젤러는 “우리는 부활주일에 여기에 왔습니다. 이날에 죽음의 철장을 부순 주님께서 이 백성을 얽매고 있는 줄을 끊으시고, 그들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얻는 빛과 자유를 누리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했다.

한국에 들어온 아펜젤러는 교육사업에 주력했다. 당시는 선교활동에 제약이 따랐던 시기였던 만큼 교육 사업에 헌신함으로써 왕실의 큰 신뢰를 얻었다. 이에 따라 1885년 8월 한국 최초의 근대 학교인 배재학당이 단 2명의 학생으로 시작되며 ‘유능한 인재를 길러내는 집’이란 뜻에서 고종이 배재(培材)라는 교명을 하사하였다.

1887년에는 감리교 최초의 정동교회를 설립하고 아펜젤러의 자녀들도 아버지의 뒤를 이어 한국에서 평생을 교육선교사로 커다란 족적을 남기게 되는데 일제의 탄압 속에서도 아들 아펜젤러 2세는 배재학당의 교장과 이사장으로, 딸 엘리스 레베카 아펜젤러는 이화학당장을 맡아 1925년 이화학여자전문학교로 승격시키고 초대 교장을 역임한바 있다.







임춘희 목사 부부

임춘희 목사는 전주 생으로 조부님이 기독교 장로였던 만큼 독실한 신앙적 가풍 속에서 성장했다. 그는 목원대 신학과 및 서울감리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1992년 대전 중앙교회에서 5년간 교육전도사로 사역한바 있으며 군산으로 이주한 것은 1993년 4월로서 지역 목회활동을 하다가 1997년 1월 내초교회 후신인 온누리교회 목사로 부임할 당시 신자는 50여명 내외였다.

아펜젤러가 무지하고 가난했던 동방의 이국땅에 찾아와 복음과 선진교육을 전파하기 위해 헌신하다가 군산앞바다에서 생을 마감한 것을 계기로 그의 일대기를 알고 난 임 목사는 커다란 감명을 받았다. 이로써 2002년도 아펜젤러 순직 100주년이 되던 해 그를 기리는 행사를 가짐과 동시에 본격적으로 기념관 설립의 의지를 굳히고 2006년부터 준비에 들어가 군산앞바다가 내려다보이는 언덕에 각고의 노력 끝에 2007년 6월 선교기념교회와 기념관을 준공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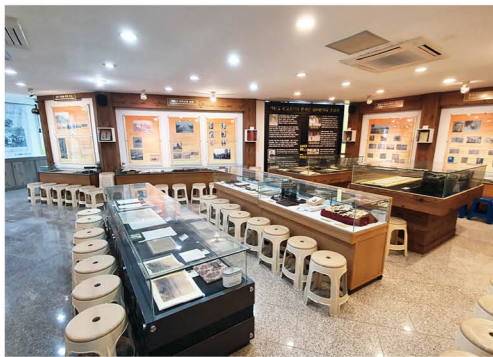




탐방객들



탐방객에게 설명 중인 임춘희 목사 사모님



전시관 내부

따라서 무엇보다 아펜젤러의 유품과 자료들의 전시가 필수적이었던 만큼 임 목사는 2010년도 미국에 건너가 아펜젤러의 후손들을 수소문하여 찾아가 만났다. 그는 방문 목적을 설명하고 정중히 유품의 기증을 부탁하였는데 이후 그 후손들이 내초도에 찾아와 기념관이 세워진 것에 큰 감동을 받고 유품 일부를 흔쾌히 기증하고 돌아갔다. 그 유품들은 아펜젤러가 부인에게 쓴 최초의 편지를 비롯하여 배재학당에도 없는 것들이었다. 또한 아펜젤러와 동행했던 노블선교사는 후일 아펜젤러와 사돈의 관계를 맺은 인물로서 임 목사는 그 후손도 초청, 감동을 선사했고 그들 역시 유물의 일부를 증정해줌으로써 기념관의 면모를 갖추는 데 큰 도움을 주었다.

아펜젤러는 한국에 들어와 신교육 창시와 더불어 삼문출판사를 설립, 독립협회를 지원하기 위해 국내 최초 한글과, 영문, 중국어 등 3개 언어(三文)로 독립신문을 발행하기도 했으며 한글 성경 출판에도 앞장섰다. 문맹률이 높던 당시 한글 성경은 기독교의 전파와 더불어 민중들의 한글 깨우침과 보급에도 큰 역할을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국가적 이익에도 부합하는 공헌이 된 셈이다.







영광대을 기념, 아펜젤러  
June 11, 1902  
선교사의 아름다운 삶이 전파되는 곳  
**아펜젤러기념 선교교회**  
기독교대한감리회

Coffee & Tea  
**Cafe 아펜젤러네**  
Appenneller's Home  
커피·차와플·스낵

안국을 자유와 빛의  
**아펜젤러**  
1825~1902

복음을 들고 찾아온 그 아름다운 발이 묻힌 곳  
기독교대한감리회  
**아펜젤러순교 기념교회**



임 목사의 아펜젤러기념관 설립은 한국인을 위해 희생한 아펜젤러의 정신을 계승하고자 함이었고 그러면서도 국가나 교단의 지원 없이 자율적 헌신으로 이루고 싶었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이 전국적으로 전파되면서 이에 공감한 뜻있는 분들로부터 후원금이 답지하기 시작했다. 그는 우선적으로 교회의 부채부터 청산했다. 그리고 건물 1층 전체를 기념관, 복지관, 교회로 조성하고 방문객 휴식 공간인 작은 카페도 마련했다. 그리고 아펜젤러와 노블 선교사의 숭고한 행적을 홈페이지 및 SNS 홍보와 더불어 스토리텔링으로 정리, 전국 각지에서 이곳을 찾는 연 2만 명이 넘는 방문객들에게 감명을 주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이 알려지면서 향후 방문객 수는 더 늘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그는 환경문제에 관해 전문지식 습득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전북대 대학원에서 환경공학도 전공했다. 하나님의 피조물인 지구의 환경을 지키는 일은 목사로서의 양심이었고 내가 살아가는 지역의 인간다운 생존추구와도 결부된 일이었기 때문이다. 사실 현실적으로도 전국 어디를 망라하고 환경과 개발과는 항상 대척 관계에 놓이기 마련이어서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시쳇말로 환경은 돈이 안 되고 개발은 돈이 되기 때문일 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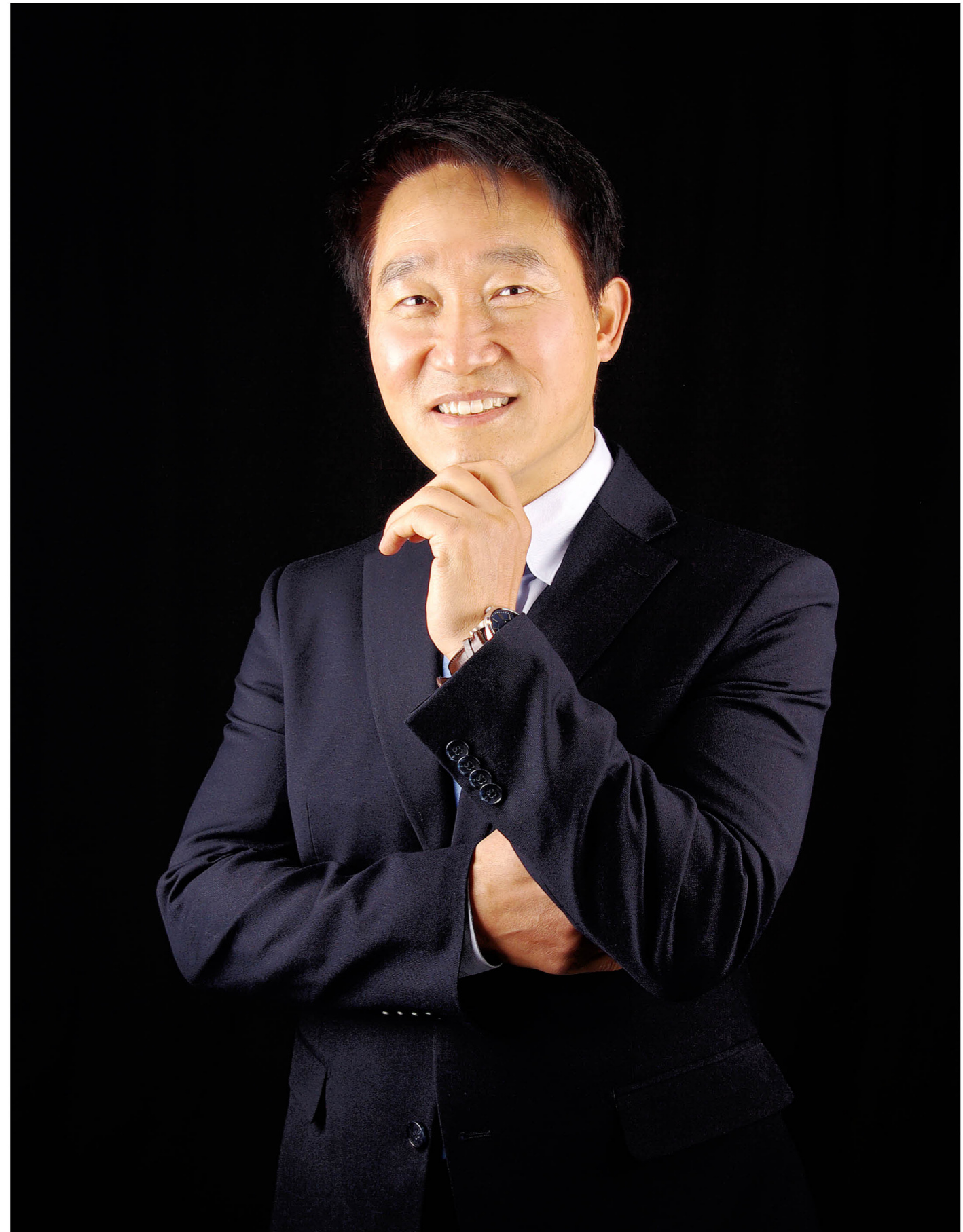
임 목사는 환경운동을 펼치기 시작하면서 지역의 환경문제에 관해 적극적으로 발언을 내놓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마을 주민들로부터 그의 진정성에 대한 일부 오해로 인해 갈등이 빚어진 탓에 안타깝고 힘든 나날을 보내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차차 풀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사익이 아닌 공익, 나보다는 공동체를 지향하는 것은 종교인의 기본적 양심으로서 그 진정성이 외면 받지 않고 언젠가는 통하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지난 2월20일 선교기념교회에서는 환경운동연합 군산지회의 정기총회가 있었다. 이날의 총회는 외지에서도 일부 회원이 참석하는 열의를 보여준 가운데 회원들 거수투표로 임춘희, 남대진을 공동대표로 선출하고 6명의 운영위원 임명과 함께 그간의 환경운동 경과와 회계내역을 보고하는 것으로 진행되었다.

임 목사는 환경운동에 있어 특히 교회가 앞장서야함을 피력하기도 하는데 하나님의 피조물을 아끼고 사랑해야 할 교회부터 녹색교회 실천운동을 펼친다는 의미에서 국내 모든 교회의 십자가를 태양광 전기를 활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그렇게만 된다면 엄청난 에너지 절감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환경운동연합은 모든 환경단체와 더불어 시민운동으로 발전시킴으로써 역량을 키워 환경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됨을 역설하는 임 목사는 군산만 해도 당면한 문제인 새만금수질을 비롯하여 발전소, 미세먼지 등에 있어 각종 공해 모니터링 장비를 구축함으로써 환경 개선을 위해 관과 유기적 협력 체제를 갖출 예정이라는 말도 들려준다.

한적했던 시골 어촌마을이 아펜젤러·노블선교사를 테마로 역사와 문화를 접목함으로써 관광객이 찾는 명소가 거듭나기까지 기울인 임춘희 목사의 노력과 헌신은 지금 이 순간도 멈추지 않고 있다. 종교마저 타락하고 지탄의 대상이 되는 현실에서 그의 내면에 자리한 이웃 섬김과 사랑의 정신, 맑고 순수해 보이는 인상과 조용하지만 분명하면서도 울곧은 말투에서 이 시대 그리스도 종교인으로서 참다운 사역자라는 느낌이 크다.

군산 아펜젤러·노블선교기념관  
아펜젤러기념선교교회  
군산시 내초안길12  
063)467-2478





# S뷰티아카데미 김지현 원장

건강하고 내면이 아름다운 미용인 양성  
미용에 무형의 가치 부여

글 | 김혜진(편집위원)  
새군산신문 기자  
kimhyejin0324@hanmail.net



김지현 원장



10여 년 이상 건강한 미용인 만들기에 몰두하는 S뷰티 아카데미 김지현 원장.

김 원장은 '사람과 내면을 디자인하는 미용인'이다. 이미 보편화된 '미용'이라는 기술에 무형의 가치를 부여하는 일을 추구한다. 대학 시절 경제를 전공했지만 여러 가지 계기를 통해 미용에 관심을 갖게 됐고, 본격적인 미용인의 길로 들어섰다. 그녀는 외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며 마음이 건강한 미용인 양성에 몰두하는 일을 지향한다.

김 원장은 청소년들 내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활발한 강연을 이어가고 있다. 호원대 미용예술학과 겸임 교수로도 활동하며 미용인 양성에도 매진한다. 미용인인 김 원장이 바라보는 뷰티산업과 '뷰티'라는 가치의 브랜드화, 앞으로의 비전에 대해 들어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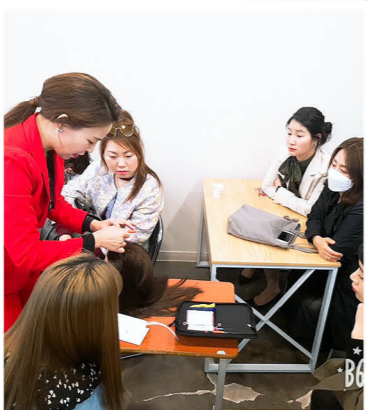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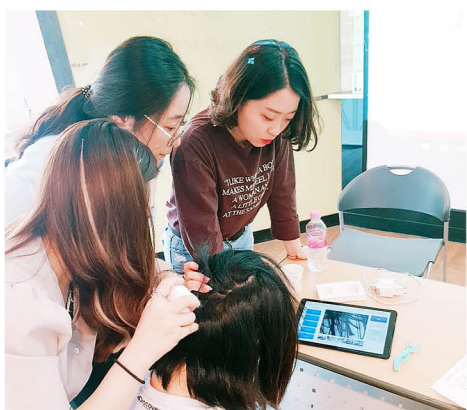


김 원장은 미용에 기술적(혹은 상업적) 영역을 넘어 좀 더 높은 가치를 부여 하고 싶었다. 현역 미용인의 시선에서 바라본 현대 사회는 매우 고도화된 기술 을 갖고 있었다. 전반적인 산업은 포화 상태이며, 시라는 새로운 무언가가 도래하는 것이 4차산업이었다. 그녀는 '4차 산업이 본격적으로 도래할 때 10년 넘게 하고 있는 이 직업이 없어지지 않고 새로운 것이 탄생했으면 좋겠 다'고 생각했다.

**'뷰티'라는 가치를 브랜드화시키자**

김 원장이 생각하는 '미용'이란 무엇일까. 또, 그녀가 일을 통해 지향하는 것은 무엇일까. 김 원장은 "미용을 다가오는 4차 산업(AI)의 흐름에 맞는 가치를 부여하는 일을 현재의 미용인들이 하면 되겠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4차 산업이 도래할 때 미용인들의 직업이 사라지지 않고 새로운 것이 탄생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앞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지'라는 고민이 있었어요. 기계는 기술에 능하지만 창의력, 감성은 사람의 영역이라고 생각해요. 기계가 할 수 없는 영역을 구축하는 일을 우리가 하면 되겠다고 생각해요."



**기계가 할 수 없는 무형의 가치 '창의력'**

"각종 기술들은 기계에 맡기면 돼요. 그렇지만 사람이 갖고 있는 감성, 디자인 이나 창의력, 독창성은 기계가 할 수 없는 부분이지요. 그것을 우리가 하면 되겠다 생각해요. 제자들을 가르칠 때도 그 일환으로 '창의력 발표 수업'을 진행하죠."

김 원장은 제자들에게도 창의력 발표 수업을 진행하며 개개인이 자기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시간이 흘러 기술을 기계에 맡기더라도, 자신만의 표현력은 그 무엇과도 대체할 수 없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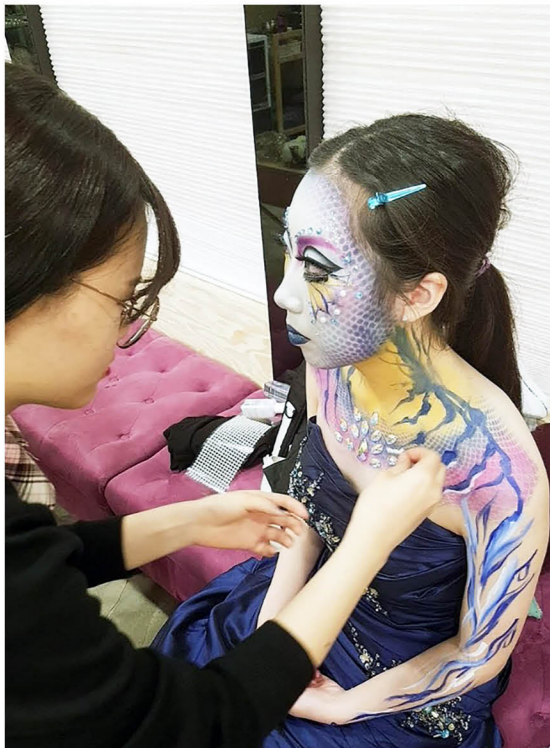


“사람들은 개개인이 전부 달라요. 즉,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신이 갖고 있는 무기를 가지고 ‘나는 이렇게 표현할거야’ 하는 표현력, 자기 생각을 듣는 시간을 수시로 가져요. 그런 훈련들이 필요해요. 수업을 하다 보면 제자들이 자기만의 생각을 잘 표현해요.”

지난 2월 초, 군산에서 몇십년 간 삼을 움직였던 미용인들, 호원대 미용예술학과 교수진들과 소상공인들이 한데 뭉쳐 군산의 7대 명물이 가지고 있는 내재된 가치를 찾는 시간을 가졌다. 스승, 제자, 선후배들이 한데 모인 자리에서 김 원장은 군산의 7대 명물 중 하나인 수시탑이 가진 이야기거리를 색으로 표현하고, 상징하고, ‘미용’이라는 학문과 결합시켜 창의적으로 표현했다. 미용으로 스토리텔링하는 일, 외적으로 보이지 않는 가치를 시각화함으로써 창의력을 기르는 일을 하고 있다.







개복동 거리예술제에서 선보인 '뷰티는 아트이다'



### 나를 표현하고 싶어 시작한 '미용'

“사회적으로 안정된 직업을 찾는 상황에서 저에게 어울릴만한 직업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하고, 여러 번의 실패도 맛 보았어요. 결혼과 육아를 하면서 내 일을 하고 싶었어요. 조직생활보단 나만의 공간에서 '나를 표현하는' 일을 하고 싶었고, 미용을 접했어요.”

초보 엄마 시절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하다가 가게를 갖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김 원장은 여자, 아내, 엄마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사회인이었다. 자연스레 '나에게 어울릴만한' 일을 탐색했다. 남들이 하는 것보다 나를 표현하는 일을 원했고, 그 종착지는 미용이었다.

김 원장은 '교육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 바로 대학원에 진학했고, 공부에 매진했다. 그 시기를 거치며 미용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 현장 교육을 다니면서 미용의 길을 걷는 후배들에게 배운 것을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새록 새록 돌아났다.

“동국대 법학 계열 대학원에 들어갔어요. 미용인들이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제도, 규제 등을 알게 하고 미용에 접목해 자기만의 기술을 등록해 내 것으로 만드는 일, 가치를 창출하는 일을 나서서 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어요. 어렵겠지만 노력해 볼 거예요.”

그녀는 미용에 기술적(상업적) 가치 외의 새로운 무언가를 부여하고 싶다는 꿈이 있다. 김 원장은 유행을 따라가기보단 나만의 특색, 자기만의 개성을 표현하는 시대라고 전망했다. 그 시대에 맞는 창의성, 기계가 대신할 수 없는 무형의 가치를 만드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다.

“사람들이 미용실, 네일아트샵을 가고, 특별한 행사가 있어 메이크업을 받았을 때 멋있어진 모습을 보고 행복해하잖아요. 이런 게 미용의 순기능이라고 생각해요. 이러한 순기능에 창의성을 덧입혀 사람들의 개성을 표현하고, 미용이라는 학문을 자료화 시키고, 숨어 있는 가치를 표현하고자 해요.”





# 청년들의 소통·교류·창업 플랫폼 '군산시 청년뜰'

안태욱 센터장

글 | 오성렬(主幹)  
poi3275@naver.com



안태욱 센터장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는 모든 나라의 현안이기도 하다. 우리나라 역시 모든 산업 설비가 자동화 되어 가는 데다가 인구 감소와 맞물려 청년들의 취업은 갈수록 바늘구멍이 되어가는 양상이다. 특히 고학력자가 양산됨으로써 조건이 좋은 대기업에의 선호 현상으로 중소기업의 지원율은 상대적으로 낮다보니 정작 산업현장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아니면 운영이 안 되는 인력난에 허덕이는 현실이다.

실제로 국내 중소기업 산업현장은 물론 이제는 농어촌의 노동력마저 전체 약 200만 명에 달하는 외국인 근로자에 의존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그러면서도 청년실업률을 거론하는 아이러니도 있지만 상황이 이렇다보니 처음부터 아예 취업을 포기하고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분야를 발굴함으로써 창업에 관심을 갖는 청년들도 늘고 있다. 하지만 창업에 따르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준비하고 극복해내기란 말처럼 쉽지 않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설립된 기구가 있다. 지난해 11월 장미동 상공회의소 신축건물 3, 4, 5층에 들어선 군산시 '청년뜰'이다.







이곳의 운영자로 발탁된 안태욱 센터장은 중앙대학교를 졸업한 창업학 박사로서 다양한 창업경력과 20건의 지적재산권을 출원 및 보유한 그 분야의 전문가이다. 그간의 주요 경력만 해도 카이스트대학교 기업가정신 온라인 교육대표 교수, 창업경영기술연구원 대표, 중국온주대학교 창업지도교수, 한국벤처창업학회 감사, 군산대학교 창업전담교수 등을 역임, 군산의 청년문제를 해결할 능력과 역량이 검증됨으로써 발탁된 인물로 지난해 6월 취임했다. '청년뜰'이라는 청년들의 무한한 잠재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곳이라는 뜻에서 '뜰' 자 두 개를 합쳐 복수 개념으로 '뜰'이라 한 것이다.

청년뜰은 지난해 6월부터 팀원을 확충하고 8월21일 상공회의소 동우아트홀에서 사업설명회를 가졌으며 11월 15일 개소식을 하면서 출범했다. 안 센터장은 취임 일성으로 "군산시 청년센터·창업센터는 청년들이 미래를 설계하는 데 필요한 역량개발 활동, 취업과 창업 지원으로 진로개척에 든든한 디딤돌이 되고자 한다. 군산 청년들이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개척하도록 지원 체계를 수립, 청년들에게 편안한 쉼터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 온·오프라인 공간에서 다함께 소통·교류·협업을 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구축하였다. 청년들의 꿈과 열정을 열렬히 응원하며 역전의 명수 군산상고의 도시답게 도전정신이 높은 기업가적 도시로 혁신할 기회를 만들고자 한다. 군산시 청년센터·창업센터는 군산 청년의 내일을 밝혀주는 등대가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 청년뜰 세부항목 운영프로그램

안 센터장에 따르면 군산 청년뜰의 대상 연령은 만19세~39세까지로서 당해 연도 추진계획과 운영 프로그램을 수립, 시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그 세부항목은 아래와 같다.

#### <청년정책 통합안내>

- 청정구역 멤버십 : 군산청년정책맵 구축, 청(년)정(책) 매니저 전담인력 배치 및 멤버십 구축·운영, 온청센 연계 홍보(상시 200명)

#### <취업지원>

- 잡 튜터링 클래스 : 취업대비 수준별 집중 멘토링 프로그램(4회 40명)
- NSC대비 특강 : NSC직업기초능력평가 대비 특강 및 NSC설명회(5회 50명)
- 취업 스터디 동아리 '취월스' : 취업 스터디 동아리 공간 제공 및 멘토 지원(10회 30명)
- 전라북도 기업 취업 특강 : 기업 실무자 초청 강의 및 현장 면접 진행(5회 200명)



- 프로그램 마스터 교육 : 오토캐드·솔리드웍스·어도비프로그램 마스터교육(3회 60명)
- 코딩교육 : 코딩전문프로그램 활용 교육(2회 30명)

#### <활동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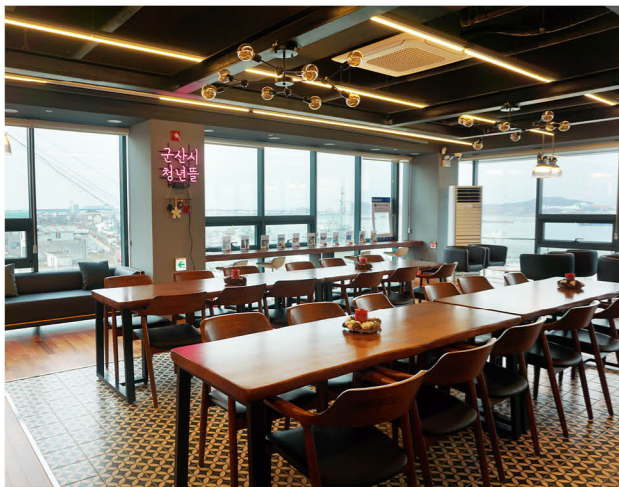
- #청년스타그램 : 놀이, 문화, 예술, 지역혁신, 창업 등 청년동아리 지원사업(2회 30팀)
- 청년 서포터즈 : 반기별 서포터즈 선발로 청년뜰 홍보활동 진행(2회 20명)
- 청년 도전기 : 유튜브·이모티콘 디자이너·웹툰 작가 도전기(4회 80명)
- 공유식탁 : 식탁에서 자기 재능 공유 및 초보강사 입문 소셜 다이닝 운영(27회 378명)

#### <청년희망 멘토링>

- 청년밀담 : 취·창업 실패 및 구직 스트레스, 미술심리관리, 구직애로해소 밀착 멘토링(22회 200명)

#### <실전창업교육>

- 군산청년창업캠퍼스 : (예비)창업자 대상 기본 교육과정(1회 24명)
- 관광 상품 수제창작 창업교육 : 군산시 관광상품 발굴 및 활성화를 위한 수제 창작물 제작 실습교육(5회 60명)







- 군산 Make-Up 창업교육 : 3D모델링, 3D프린터, 레이저커팅기, uv평판 프린터, 등 기자재의 활용법 및 시제품 제작교육 (4회 60명)
- 해외 e-커머스 창업교육 :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눈, 홈페이지 등)을 활용한 전략적 마케팅 교육 및 실습(2회 30명)
- 군산시 특화형 그린텍 창업교육 : Green Technology의 기술 개발과 관련 창업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교육 마련(1회 20명)
- 투자유치 IR피칭 교육 및 지원 : 초기자금 마련 위한 투자유치 및 IR피칭 교육지원(1회 40명)
- 지식재산권 교육 및 출원 지원 : 지식재산권에 대한 이해와 법률 이슈 사례를 통한 보호방법 교육 및 지원(2회 40명)

<창업인프라 구축>

- 군산시 창업가 네트워크데이 : 지역 내 활동 중인 창업자들 간 창업에 관한 정보 및 트렌드 공유의 장 마련 (3회 180명)

<창업문화 조성>

- 군산시 창업가 마케팅/홍보 지원 사업 : 홍보 및 마케팅에 어려움을 겪는 군산지역 창업가 마케팅/홍보 지원(2회 18건)
- 군산 관광상품 아이디어 창업 경진대회 : 다양한 주제를 통해 창의적 아이디어 및 아이템 발굴(1회 40명)
- 원스톱 창업컨설팅 : 분야별 창업 성공/실패 사례 공유(11회 60건)

<공동>

- LINKED-IN : (예비)창업자들이 직면한 문제를 1:1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해결(4회 100명)
- 성과보고회 : 군산시 청년들의 성과 확산을 통해 다양한 시너지 창출(1회 100명)

<활성화>

청년터미널 : 청년커뮤니티, 아이디어 발굴 등 자발적 활동을 위한 장비 지원·교육(24회 360명 / 전체 148회 약 2,400명)



운영 4개월만에 1,500명 이용, 47개 팀 창업 성과

군산시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에서 성과를 측정할 때 연 1,300명 정도가 이용하면 성공적인 운영으로 판단하는 기준이 있는데 청년들은 상기 프로그램 운영 4개월 만에 1,500여 명이 이용하는 성과를 도출했다. 지난해 이용자는 77% 이상이 군산청년(만19~39세)으로서 예비창업자를 비롯하여 재직자, 대학생, 무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직업군으로 나타났으며 단기간 내에 47개 팀의 창업가를 발굴하는 목표치 이상의 성적을 거뒀다.

신축 상공회의소 3, 4, 5층에 터를 잡은 청년들은 각 층을 특징 있게 꾸며 3층은 열린모임공간(다목적실, 세미나실, 4차산업교육실)으로, 4층은 소통공간(공유카페, 공유주방, 상담실, 운영사무실, 해외취업센터, 일자리정보센터), 5층은 시제품 제작, 협동공간(코워킹스페이스, 스튜디오, 3D프린팅실, 메이커스페이스)으로 운영 중이다.

군산시 청년들 대상 상시 문화 개방

이렇듯 청년들에게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제공하면서도 생각보다 찾는 이들이 적어 고민거리라 말하는 안 팀장은 청년들의 위치가 시민들의 발길이 뜸한 원도심 외곽에 자리하기 때문인 듯 하다며 기관과 시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그간 청년들을 한번이라도 방문한 청년들이 다시 청년들을 찾아오는 등 재방문율이 높은 것에서도 홍보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청년들을 알리기 위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안태욱 센터장, 군산과 인연을 맺게 되면서 평소 산책을 즐기는 은파호수공원이 너무 좋아 자신의 아호를 은파(銀波)로 지었다는 것에서도 군산에 대한 그의 애정이 읽혀지는데 아무쪼록 그의 노력과 역량의 결집으로 군산의 청년들이 어려움을 겪는 군산의 모든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의욕을 일깨움으로써 다 함께 성취의 목표를 이룰 수 있는 플랫폼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군산시 청년들 청년센터 창업센터  
 군산시 내항1길4(상공회의소 3,4,5층)  
 T.063)471-1555





# 세종대 수석합격, 고태은 양의 춤 이야기

“수석합격, 기쁨 보다 더 큰 의무감 느껴”  
5번의 수시 연속낙방 예비 춤꾼의 인생역전

글 | 채명룡(편집장)  
cmr0118@naver.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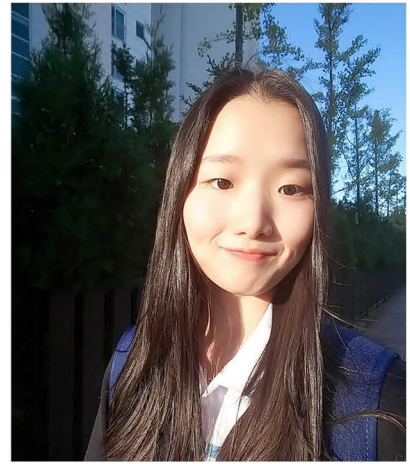
“수석 합격이라는 게 그냥 부르려고 만들어 놓은 게 아니잖아요. 대부분 예고 출신이 합격하는 세종대에서 일반 학생이 수석이 되었다는 게 믿기지 않은 일이죠. 하지만 수석이라는 이름이 부끄럽지 않게 두 배 세 배 땀 흘릴 겁니다.”

고태은 양(중앙여고)이 정시 입시에서 무용 명문 세종대에 수석 합격했다. 무용가로써의 앞길이 환하게 열린 셈이다. 서울종합예술대, 서울예대, 단국대, 서경대 등에도 합격통지서를 받아놓은 데 이는 낭보였다.

지난 2019년 한 해 동안 5번의 수시에서 연속 떨어지는 지독한 불운을 겪은 후의 일이다. 울기도 많이 울었고, 불면 호흡곤란과 심한 스트레스로 열병을 앓았던 피 끓는 청춘의 인생역전 드라마였다.

“수시에서 계속 떨어졌을 땐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그런데 김정숙 원장님께서 정시 준비하면 된다고 용기를 북돋아주셔서 다시 도전하게 되었거든요. 실기 테스트를 위하여 매일 5~6시간씩 연습한 결과가 이렇게 좋게 나온 것 같아요.”

수시 전체 낙방의 역경을 딛고 정시 수석합격이라는 인생역전의 드라마를 써내려간 이 여고생 춤꾼에게서 어려움을 극복해 가는 소리를 듣는다.



고태은 양과 엄마 이현아씨



부채춤 공연





“유치원 다닐 때 언니들 따라 방과 후 무용교실에 갔는데, 제가 언니들 따라 흉내 내는 걸 보고 당시 선생님이 배워보라고 권유했어요. 춤과의 첫 인연이 되었죠.”

어린 아이 때부터 열정적이었지만 잦은 부상으로 춤과의 인연은 점점 멀어졌다. 지곡초 2년 때 방과 후 발레수업에 참여했다가 발목을 다치고, 2년 후 다시 발레학원에 들어갔지만 무릎부상으로 중도하차했다.

중학생이 된 태은 양은 다시 도전했지만 또 다시 부상의 불행이 닥쳤다. 무용가의 꿈을 접어야 할 위기의 순간에 김정숙 원장의 눈에 띄는 행운이었다.

“근육을 심하게 써야하는 현대 무용이 아이에게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계속 아프면서 이제는 그만두게 하려고 마음먹었죠. 포기하지 않는 걸 보고 ‘정 하고 싶으면 한국무용으로 바꿔볼래’하고 권했어요.”

부모님(고지훈·이현아)은 현대무용에서 방향은 바뀌었

지만 무용이 바로 딸의 길이라는 생각을 했다. 그런 믿음과 희생이 오늘의 기대주를 만들어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한국무용 입문 2년째인 중앙여고 1학년 때 창작무용작품으로 전국대회에 나갔고, 중요무형문화재 27호 ‘승무’ 전수자인 김정숙 원장으로부터 승무를 집중 지도받고 전국에 이름을 날리기 시작했다. 수석의 영광은 그런 바탕이 있기에 가능했다.

춤을 향한 열정은 현대무용을 하면서의 부상과 불행, 그리고 아픈 기억을 사그라지게 만들었다. 손짓 하나 하나에 들어 있는 한과 여운, 그리고 눈길과 표정이 생생하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끝 선의 미학을 추구하는 우아함과 자연스럽게 흘러내리는 한국적인 정서가 이 앓된 춤꾼의 가슴에 스며들어온 건 어쩌면 운명적이다.



군산예총 중국 방문 공연단 활동



김정숙 원장 주관 공연 참가





태은 양은 놀랍게 적응해 나갔다. 그리고 매일 저녁 7시면 어김없이 김정숙무용학원에 나왔다. 평상시엔 하루 3시간, 대회 준비 땀 하루 5시간 이상씩 지독하게 연습을 계속하면서 한국무용 기대주로 급성장했다.

“처음 시작하는 마음으로 기량을 갈고 닦아야지요. 대학을 거쳐 한국무용수로 성장하고 안무가로써 자리를 잡아나가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안무로 작품을 만들고 그 안에서 제가 꿈꾸는 세계를 펼쳐 보이고 싶어요.”

자영업업을 하면서 힘들다 내색 않고 밀어준 엄마 아빠께 모든 영광을 돌린다는 5남매 중 셋째 딸의 애뜻한 마음도 예쁘다.

“항상 버팀목이 되어주고, 힘들 때 곁을 지켜주시는 아빠 엄마가 오늘이 저를 만들어주신 것 같아요. ‘포기하지 말고 조금만 더 해보자’고 격려해주신 원장님께도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왠지, 군산 무용의 밝은 미래를 보는 것 같다.

“항상 옆에서 지켜봐 주시고, 지칠 때마다 일으켜 세워주시면서 희생하시는 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는 태은 양의 말에서 ‘자식 키우기 힘든’ 부모들의 목은 갈증이 풀어지는 느낌이다.

방탄소년단의 부채춤 안무처럼 한국무용을 세계인들이 잘 알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고 싶다는 새내기 춤꾼에게서 단비와 같은 춤 소식이 계속 이어질 것 같다는 예감이다.

**<수상 경력>**

**• 2017년- 창작무용작품**

- 공주대학교 경연대회 장려상(4월8일)
- 서경대학교 경연대회 은상(4월15일)
-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은상(4월30일)
- 송원대학교 금상(6월4일)

**• 2018년- 승무**

- 춤과 사람들 은상(3월31일)
- 전북대학교 동상(4월5일)
- 공주대학교 특상(4월7일)
- 서경대학교 은상(4월14일)
-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금상(5월13일)
- 숙명여자대학교 동상(6월12일)
- 제13회 전국 풍남춤 페스티벌 대상(7월15일)

**• 2019년 - 승무**

-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은상(5월12일)
- 충남대학교 금상(6월7일)
- 송원대학교 금상(7월14일)
- 제27회전국청소년민속예술제 대상(10월19일)

**<예술 활동>**

- 2017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청소년 한마음대회 버꾸춤

제49회 진포예술제 9월의 노래

장사익과 함께 우리가락 우리숨결 버꾸춤

2018 청소년 어울림마당 제14회 대한민국 청소년 박람회 청소년군산시간여행축제 “당연지사, #실화나?”버꾸춤

2018 기업과 함께하는 재능나눔 자원봉사 박람회 버꾸춤

2018 제12회 우리춤 대축제 버꾸춤

세계속의 한국, 생동하는 전라북도 국제춤 페스티벌 천년비상, 춤의 방주 전북 강강술래, 손북춤

애들아! 함께놀자 손북춤, 강강술래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지역 축하 행사 버꾸춤

2018 일본공연 버꾸춤, 손북춤, 강강술래

2019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청소년 한마음 대회

The 14th POONG-NAM International Choreography Festival

제14회 풍남춤 樂 페스티벌-국제안무가전 개막공연 버꾸춤

한국군산예총 '해외문화예술교육' 중국우호도시방문 축하공연 버꾸춤, 강강술래, 손북춤

군산시-장안시 결연 10주년 축하 예술교류공연

Program of the Concert for the Chinese Dream Silk Road Charm Suite

제51회 진포예술제 버꾸춤

애들아! 함께놀자 II 손북,강강술래

제34차 2019 한국유네스코운동 전국대회 군산 축하공연 강강술래, 버꾸춤

2019 우리가락 우리숨결 버꾸춤

아! 토리 주머니 창극



# 군산 여성농업인이 만드는 '마더소스'

글 | 이승신(편집위원)  
seung0420@nate.com

농촌 6차 산업화는 농촌에 존재하는 다양한 자원을 농촌 주민이 활용하여 소득화하기 위한 전략이다. 1차 산업인 농림수산업, 2차 산업인 제조·가공업, 3차 산업인 유통·서비스업을 복합한 산업으로, 농산물을 생산만 하던 농가가 고부가가치 상품을 가공하는 것은 물론 향토 자원을 이용해 체험프로그램 등 서비스업으로 확대시켜 높은 부가가치를 발생시키는 것을 말한다. 농가들이 농업 이외의 산업에서 소득을 얻어 농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연구되었는데, 1차 산업인 농업에 2차 가공 산업과 3차 서비스업을 결합시켜 농가가 보다 다양한 소득원을 얻게 만들도록 하는 농업의 6차 산업화가 시도되고 있다. 예를 들어, 사과 농사를 짓는 사과 농가의 재배 면적이 충분하지 않아 생산된 사과를 판매하는 것만으로 충분한 소득을 얻기 어려운 경우, 재배한 사과를 잼이나 사과파이 등으로 가공·판매하여 새로운 소득을 얻을 수 있다. 또한 사과농장을 체험 농장으로 만들어 도시민들이 농장체험이나 숙박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여 소득을 추가로 창출하기도 한다. 이처럼 6차 산업은 농가가 자신의 농업은 물론 주변 여건과 기술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하도록 하는 것이다.



군산시 농산물가공지원센터 '농부의 식품공장'에서는 군산지역 농업인들이 재배하는 농산물을 사용하여 다양한 가공 식품 등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현재까지 여러 가지 제품 등이 출시 되고 있으며 쌀조청, 잼 종류 등 다양한 가공 제품 등이 판매중이다. 로컬푸드 상품화 확대를 위해, 농업기술센터는 2017년부터 농식품 창업 아카데미 소스/드레싱반 과정을 운영, 귀농인, 중소농, 여성농업인 등으로 농업인 공동체를 조직하여, 지역 농특산물을 이용한 소스/드레싱 제품을 기획하고 제조기술 표준화 과정과 시식평가회를 거쳐 제품개발을 마쳤다.



꿈드레농원 사과

마더소스는 2017. 7월부터 소스 가공 공동체 3농가가 준비하여 2019년 7월에 제품으로 출시하게 되었다. '꿈드레 농원' 미니사과를 재배하는 여성농업인 양옥선씨와 '개미와 베팅이' 여성농업인 고희자씨는 2017년부터 소스 개발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 여성농업인들은 농업 기술센터 직원 분들과 상의해가면서 마더소스라는 브랜드를 만들었고, 여러 번의 시식평가회를 열어 단점과 장점을 찾아가면서 맛을 잡아갔다. 이렇게 2년여 동안의 노력으로 완성되어진 마더소스 제품에 대한 애정은 남다르다. 농부가 생산한 안전한 농산물과 엄마의 정성으로 만든 아이들과 가족을 위한 건강한 소스/드레싱 제품 스토리를 담은 '마더소스'라는 브랜드로 지역 농특산물인 미니사과와 땅콩, 양파, 마늘을 원료로 한 소스·드레싱 4개 제품을 출시하였다. 마더소스는 현재 사과소스, 땅콩소스, 마늘소스, 양파소스 등 4종류가 있다. 사과소스는 샐러드소스로 이용하면서 치즈나 견과류를 섞어 먹으면 잘 어울린다. 땅콩소스는 월남쌈을 먹을 때, 양파소스와 마늘소스는 로스구이 먹을 때 함께 먹으면 좋고, 요즘은 주꾸미 샤브샤브와 잘 어울릴 것이다.





사과소스를 만드는 제조 과정은 다음과 같다. 사과소스는 꿈뜨레농원에서 재배하고 있는 알프스 오토메 미니 사과를 사용한다. 사과를 세척하고 분쇄 한 후 양파, 포도씨유, 소금 등의 부재료를 계량하여 혼합기에 넣고 믹싱 한다. 재료들이 잘 섞이면 60도에서 30분 이상 저온장기간 살균한다. 살균 후에 준비된 용기에 담아 포장한다. 이 모든 과정을 여성 농업인 2명이 만들고 있다. 아직은 마더소스 소비량이 많지 않아 모든 과정을 직접 참여하여 만들고 있지만 차후에 마더소스 소비가 많아져 생산량이 늘어나면 제품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자동화 시설을 이용해 조금이라도 편하게 만들 수 있다고 한다.

세척->분쇄->혼합->살균->포장 순서로 만들어진다.

**01** 세척



**02** 분쇄



**03** 혼합



**04** 살균



**05** 포장







마더스 소스



살균시설

마더스소는 군산시 여성농업인들의 노력의 결실이다. 사과 소스를 만드는 과정 내내 정성껏 즐겁게 만드는 모습이 너무 인상적 이었고 소스의 한방울도 소중하게 느껴졌다. 아직까지 군산에서도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아 안타깝고, 앞으로 많은 관심과 응원이 필요 할 것이다. 소스류 뿐만 아니라 군산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로 가공제품들이 많이 만들어 지고 있다. 군산지역에서 생산되어지는 제품들에 관심을 갖고 이용해가는 것이 군산 지역 농업인들의 부가가치를 늘릴 수 있도록 돕는 방법이 아닐까?

**판매처**

- 군산 옥산 로컬푸드직매장
- 군산 박물관 로컬푸드직매장
- 선유도 특산물 판매장
- 동김제농협로컬푸드

**상품가격**

품명	규격	단가(원)	유통기한	비고
군산미니사과드레싱	220g/병	5,300	3개월	
군산양파드레싱	220g/병	4,800	3개월	
군산양파소스	220g/병	4,800	3개월	
군산마늘소스	220g/병	4,800	3개월	



군산시 농산물가공지원센터는 지역농산물 가공의 부가가치를 농가에 환원하는 순환체계를 구축하여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적극 나서고 있다. 2015년 '농부의 식품공장 영농조합법인'을 조직하여 32명의 농가로 시작해 현재 68개의 농가가 농산물가공지원센터를 이용해 창업에 도전하여 농업인의 농외 부가소득 창출에 견인차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지역 농산물로 농업인이 직접 생산한 가공식품을 지역에서 소비하여 농산물 가공의 부가가치를 농가에 환원하는 지역 순환체계를 강화하고, 이를 성공적으로 안착시켜 완성도 높은 로컬푸드를 실현해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현동부 대표

# Coffee & Pub 군산 속의 제주도 카페 '드르쿰다'

현동부 대표

글 | 오성렬(主幹)  
poi3275@naver.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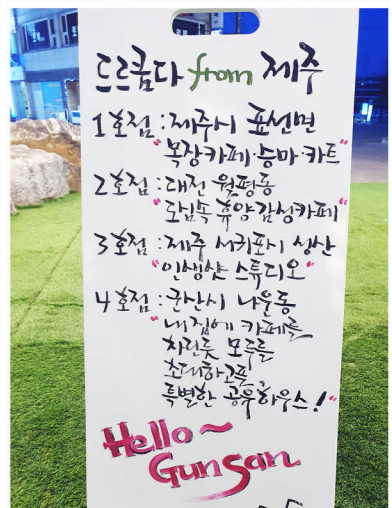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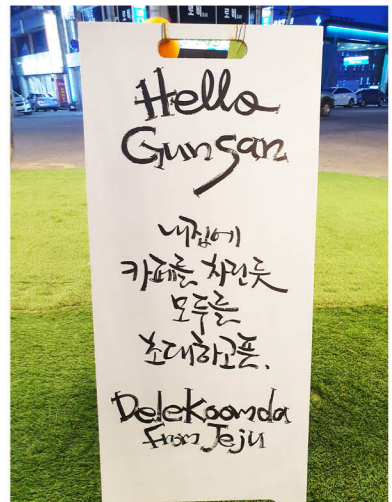


나운동 소재 '드르쿰다' 카페. '넓은 땅을 품다'의 제주 방언인 '드르쿰다'를 상호로 문을 연 그곳에 들어서면 우선 웅장한 건물 규모에 놀란다. 580평 대지에 3층 건물 연면적만 해도 300여 평에 달하는데다가 틀에 박힌 듯한 기존 카페 디자인을 탈피, 군산에서는 볼 수 없는 신개념 컨셉으로 조성되었기 때문이다. 1층 입구 주방의 면적이 작은 카페만한 것도 그렇고 각 층마다 차별화된 인테리어로 꾸몄을 뿐만 아니라 당당한 건물외관이며 마당의 소나무들과 백사장을 축소한 듯한 아이들의 물놀이 공간을 비롯하여 멋진 조명들이 운치를 더하고 있어 가히 군산의 새로운 카페문화를 선보이기에 손색없는 곳이라 할 만하다.





이곳의 현동부 대표는 제주도 생으로 사실 군산과는 아무런 연고도 없는 인물이나 2년 전 군산을 방문했다가 현재의 위치(구 궁전꽃게장)가 매물로 나온 것을 알게 돼 지난해 가을 매입, 자신의 구상으로 건물을 신축했다. 승마-카트레이싱 사업체인 제주 '동부레저'의 대표이기도한 그는 제주에 3만5천 평 규모의 드르쿰다 본점을 개설, 목장형 카페로 운영함으로써 많은 관광객이 찾는 제주의 명소로 탄생시킨바 있으며, 2호점으로서 2,500 평 규모인 대전 드르쿰다를 비롯하여 성산 일출봉 앞 스튜디오형 바다카페인 2,200평 규모의 3호점, 그리고 4호점으로 군산의 드르쿰다가 개업을 맞게 된 것이다.







300여 명이 동시 이용할 수 있는 규모의 군산 드르큘다는 아직 정식 오픈을 하지 않았음에도 벌써부터 입소문을 타고 하루 평균 150여 명 이상이 찾고 있으며 주방 직원들만 해도 5~6명에 이를 정도로 나날이 손님이 늘고 있는 추세다. 고객들 대부분은 젊은 층으로서 가족단위도 많은데 다양한 포토존을 마련, 추억의 한순간을 멋지게 남길 수 있게 한 서비스도 한몫을 하고 있다.

Coffee & Pub 카페답게 커피는 물론 디저트와 피자, 간단한 맥주도 즐길 수 있는 이색카페 드르큘다, 커피나 음료의 경우 5~7천 원 정도로서 아이들과 가족단위로 즐길 수 있는 공간이며 멋진 경관 등을 따지면 비교적 합리적 가격이 아닌가 한다. 편안하고 멋진 분위기 때문인지 커피 한잔 마시며 몇 시간씩 앉아 있다 가는 손님도 있다고 말하는 현 대표는 고객들이 그만큼 아늑함을 느껴서가 아니겠냐며, 업소의 홍보 일환으로 개업일인 3월14일, 나이키, 아디다스 의류의 50% 할인행사를 연다고 발표, 벌써부터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진다.

Coffee & Pub 카페 드르큘다  
 군산시 부곡1길45(유원아파트 입구)  
 T.063)712-7654







군산체력인증센터에 전화예약을 신청하거나 현장을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현장에 도착해서는 신분증으로 개인 확인을 실시한 후 간편한 복장과 운동화로 환복하고 개인에 관련된 설문지를 작성한다.

다음 혈압, 키, 몸무게 인바디 등을 측정하고 정해진 순서에 따라 체력을 측정하게 된다. 체력을 다 측정하고 나면 데이터 분석을 통해 체력을 검정받게 된다.

체력검정 시 표준 30% 안에 들어가면 인증서를 받을 수 있으며 그 외에는 참가서를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측정된 체력에 따라 개인의 식습관이나 몸 상태를 포함해 맞춤형 운동처방을 받는 것으로 모든 프로그램을 마칠 수 있다. 이 과정이 약 30분 정도가 소요되며 6개월 뒤 다시한번 체력 측정을 실시해 자신이 변화한 과정을 되돌아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군산체력인증센터-달리기

## 과학적·체계적인 체력관리 서비스로 '시민건강 UP'

군산체력인증센터,  
과학적 체력관리 시민 호응

글 | 장인수(편집위원)  
새군산신문 부국장  
isj1453@nate.com

군산시민이면 누구나 무료로 과학적인 체력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군산체력인증센터'가 시민들의 호응을 받고 있다.

월명체육관 내 위치한 군산체력인증센터는 성분분석기, 근력, 근지구력, 유연성 등 기초체력측정 장비와 운동부하 검사장비가 준비돼 있고 전문 운영요원 5명이 배치돼있다.

또 연령에 따라 청소년(만13~18세), 성인(만19~64세), 어르신(만65세 이상)으로 구분지어 시민들의 체력을 측정하고 개인별 맞춤형 운동을 처방하며, 운동이 부족한 사람들을 위한 증진교실(8주/주3회(월·수·금))을 운영하고 있다.

군산체력인증센터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지원하는 '국민체력 100 체력인증센터'공모사업으로 선정됐으며 전북에서는 전주, 남원에 이어 군산시가 세 번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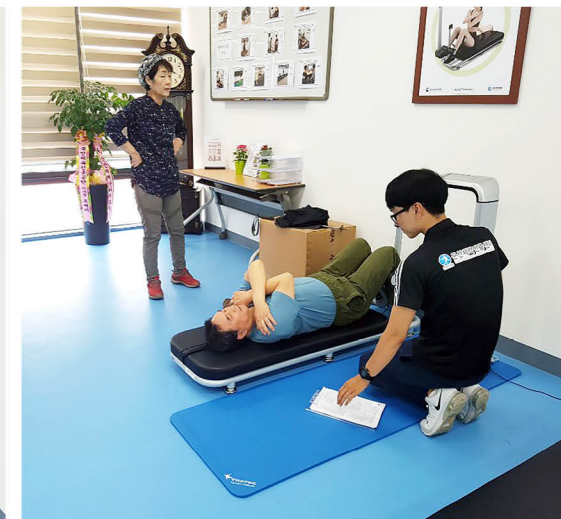




영광중 협약식



소방서 협약식 체험중



군산체력인증센터-잇몸말아올리기(근지구력)

또한 운영시간 내 방문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학교 및 거동이 불편한 계층을 찾아가는 출장 체력 측정을 통해 개인에 꼭 맞는 운동처방을 제공했으며, 8개 기관과 업무 협약을 맺어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협조체계를 구축했다.

군산체력인증센터는 개소 이래 6개월 만에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정한 연간 목표인 원 3,500명을 훌쩍 넘는 4,032명의 체력을 측정했다. 아울러 개인별 맞춤형 운동처방과 체력증진 교실운영을 통해 시민들에게 체력증진교실로 무료 체육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군산체력인증센터는 체성분석기, 근력, 근지구력, 유연성 등 기초체력측정 장비와 운동부하 검사장비가 준비돼 있고 전문 운영요원 5명이 배치되어 시민들의 체력을 측정하고 개인별 맞춤형 운동을 처방하며 운동이 부족한 사람들을 위한 증진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영광중 출장 체력증진

체력인증센터는 지난해 군산소방서와 협약식을 시작으로 영광중학교, 대한노인회 군산시지회, 군산교육지원청, 서해환경 등 기관 및 단체와 협약식을 가졌으며 더 많은 협약 체결을 통해 전 군산시민들의 건강을 책임질 계획이다.

군산체력인증센터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예전에는 남들이 좋다는 운동을 두서없이 했는데 그 결과 오히려 관절과 허리 등에 무리가 돼 건강을 망치른 경우가 있었으나 체력인증센터를 통해 전문가들로부터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체력관리 서비스를 받고 나서는 혼자 운동을 해도 몸에 전혀 무리가 없는 것은 물론 건강도 좋아졌다”며 “더 많은 시민들이 이곳에서 자신의 몸에 맞는 처방을 받고 건강한 삶을 살았으면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군산체력인증센터는 지난해 12월 전국 총 49개소 중 신규센터로는 ‘최우수’ 운영센터로 선정됐다.

국민체육진흥공단과 국민체력100 사업팀에서 실시한 2019년도 성과평가에서 올해 개소한 전국의 신규센터 8개 중 1위를 차지했다.

이는 개소함과 동시에 많은 시민들에게 알리고자 각종 유관기관 및 단체를 직접 찾아가는 대면홍보를 실시하고, 직장인들을 위해 야간 운영을 함으로써 타 센터와는 차별화 된 운영 결과다.



영광중학교 출장 체력증진





## 허브 수채화 미술학원

원장 김성춘 작가

글 | 오성렬(主幹)  
poi3275@naver.com

인물의 생동감 넘치는 포즈와 살아 있는 시선, 머리 카락의 섬세함과 찢어진 청바지의 바느질선이며 풀린 올, 낮은 운동화의 뒤틀린 끈 등 그의 그림에서 묘사된 디테일은 마치 실물을 앞에서 보는 듯하다. 나운동 허브 수채화 미술학원 원장인 김성춘 작가 이야기다. 그는 특히 인물 수채화에 있어서 자타공인 국내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그래서일까, 현직 미술학원 원장 중엔 그에게 지도를 받으러 오는 이도 있을 정도이다.

김 작가는 군산 생으로 군산상고와 전주대학교 미술학과를 졸업했다. 어려서부터 타고난 소질로 고등학교 재학 시 수채화를 배우기 시작했고 대학에서는 필수 과정으로 유화를 공부했던 그는 졸업 후 서울의 모 입시학원에서 7년 정도 종사한 적도 있다. 본격적으로 수채화에 천착했던 것은 99년도부터였는데 유화와 달리 물 번짐으로 구현해내는 빛과 여백미의 예술인 수채화에 더 매력이 느껴졌기 때문이다.



자화상 2015

예술의 전당 로비에 상설 전시된 작품 2000







화실에서 이소영 작가와

수채화에 뛰어난 불과 일 년 후인 2000년, 경험삼아 한국수채화공모전에 출품한 그의 그림은 뜻밖에도 우수상을 안겨줬다. 이름 있는 작가들을 제치고 수상을 하게 됨으로써 더욱 자신감이 배가된 그는 쉬지 않고 실력을 갈고 닦으며 일취월장했다.

그는 특히 인물화를 즐겨 그린다. 대체로 꽃이나 풍경 등이 대세인 여느 수채화와 달리 그의 인물화는 가히 독보적이라 할 만하다. 필자도 지금까지 수많은 수채화 전시를 관람했지만 특히 인물에 있어 조금만 거리를 두고 보면 마치 사진인 듯 착각이 들 정도로 그 만큼 사실적 표현을 해낸 그림은 본 적이 없다. 김 작가에 따르면 최근 자신의 그림들은 프랑스제 ARCHES종이를 사용한 것으로 약간 고가이기는 하지만 종이가 두꺼운 만큼 물을 머금은 양이 많은 특성을 가지고 있어 수채화에 적합하기 때문이라고.

그의 그림들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자화상도 있지만 자신의 수강생, 또는 길을 가다가 우연히 만난 어느 노인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림 속 인물들의 모습은 거의 무표정이다. 이것은 관객에게 상상력을 갖게 하려는 작가의 의도이기도 하다. 화폭을 꽉 채우지 않고 부분을 남겨두는 여백이나 빈 의자 등도 같은 맥락이다.

자신의 그림을 인정해주고 좋아해주는 사람을 만났을 때 가장 긍정의 에너지를 얻고 보람을 느낀다는 김 작가. 렘브란트가 좋아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다는 김 작가는 미술 말고는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남들이 다 하는 재테크니 뭐니 하는 돈과 관련된 일엔 아예 관심도 소질도 없다고 들려주는데 그래선지 일설에 의하면 학생생 중엔 기꺼이 무료 수강을 해주는 이도 있단다. 자신 소유의 건물 임대료가 아무리 밀려 있어도 세입자에게 독촉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지인의 말에서도 입증되는 셈이다.



시선 2014



핑크소파



포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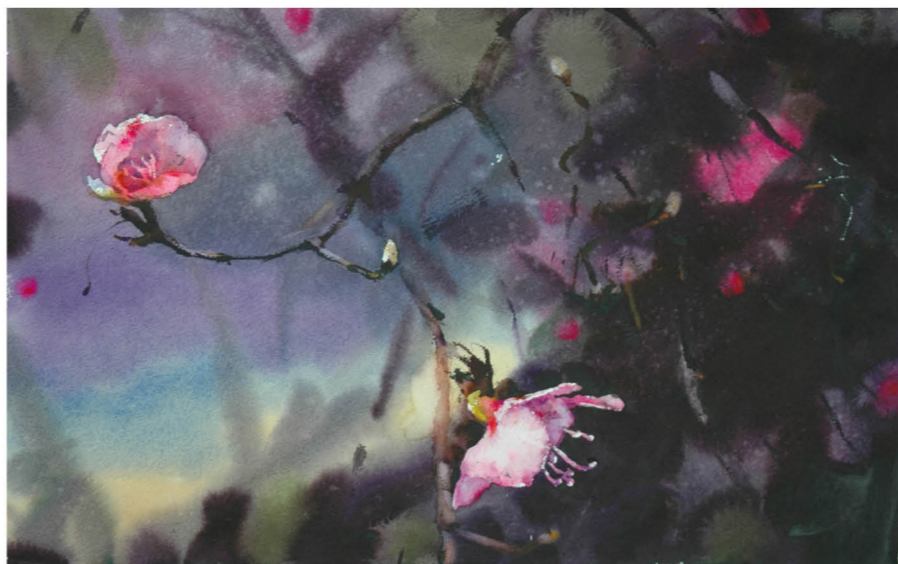
햇살이 비추는 장미



포즈 2018



포즈 2019



본래 비전공자이지만 2014년부터 김 작가에게서 수채화를 지도 받고 있는 이소영 작가에 따르면 유화만이 그림이라고 생각했던 자신이 6년 전 우연히 김성춘 작가의 수채화를 보는 순간 완전히 매료되어 즉시 제자를 자청, 입문했다면서 선생님이 그림에 열중하고 있을 때, 손끝에서 살아나는 그림의 모습이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마치 마법의 손 같은 느낌을 받는다며 그때가 가장 멋지게 보인다는 말도 들려준다. 또 아무리 서툴고 선생님을 귀찮게 해도 단 한 번도 짜증내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항상 칭찬과 격려로 지도해주고 자신감을 북돋아 줌으로써 자신이 남보다 조금 빨리 습득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이라며 공을 스승인 김 작가에게 돌린다.

해마다 제자들과 합동 그룹전을 갖는다는 김성춘 작가. 그의 허브미술학원은 입시반과 별도로 오전에 성인 취미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에 따르면 제자들의 실력이 나날이 향상되는 것을 보면서 그 자신은 물론 제자들 스스로도 만족감을 드러내기도 한다. 그 제자들은 대부분 40~60대 여성이 대세로서 전주, 익산에서도 수강을 오기도 하며, 게 중엔 5년~10년 이상을 꾸준히 수강하는 제자도 있을 만큼 그의 학원은 인기가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성춘 작가 약력**

- 개인전 5회
- 그룹전 300회
- 대한민국미술대전 입선2회
- 한국수채화공모전 우수상 및 은상
- 전라북도 미술대전 연5회 특선 외 다수 입상
- 제33회 대한민국미술대전 수채화부문 심사위원 외
- 다수 미술전 운영 및 심사위원 역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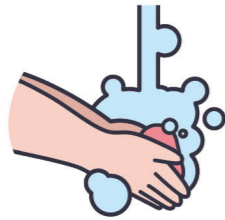
**허브 수채화 미술학원**

010-2642-4740



# 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 기억해야 할 행동수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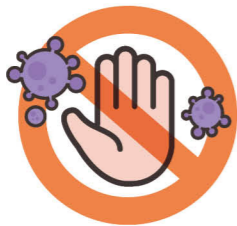
## 국민 예방수칙



흐르는 물에 비누로  
꼼꼼하게 손씻기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 만지지 않기



발열, 호흡기 증상자와의  
접촉 피하기

## 특히 임신부, 65세 이상, 만성질환자 외출 시 꼭 준수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 착용하기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하기

# 코로나19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 “마스크 착용으로 감염병 예방할 수 있습니다”

- 1 마스크를 착용하기 전,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꼼꼼하게 씻으세요
- 2 마스크로 입·코를 완전히 가려서, 얼굴과 마스크 사이에 틈이 없게 하세요
- 3 마스크 안에 수건, 휴지 등을 넣어서 착용하지 마세요
- 4 마스크를 사용하는 동안 마스크를 만지지 마세요  
마스크를 만졌다면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꼼꼼하게 씻으세요
- 5 마스크를 벗을 때 끈만 잡고 벗긴 후,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씻으세요

## 접이형 제품 착용법

- 1 마스크 날개를 펼친 후 양쪽 날개 끝을 오므려주세요
- 2 고정심 부분을 위로 하여 코와 입을 완전히 가려주세요
- 3 머리끈을 귀에 걸쳐 위치를 고정해주세요
- 4 양 손가락으로 코편이 코에 밀착되도록 눌러주세요
- 5 공기누설을 체크하며 안면에 마스크를 밀착시켜 주세요

## 컵형 제품 착용법

- 1 머리끈을 아래로 늘어뜨리고 가볍게 잡아주세요
- 2 코와 턱을 감싸도록 얼굴에 맞춰주세요
- 3 한 손으로 마스크를 잡고 위 끈을 뒷머리에 고정합니다
- 4 아래 끈을 뒷목에 고정하고 고리에 걸쳐 고정합니다
- 5 양 손가락으로 코편이 코에 밀착되도록 눌러주세요
- 6 공기누설을 체크하며 안면에 마스크를 밀착시켜 주세요



세무상담 및 고문 | 가장 및 신고대리 | 법인 및 개인세무조정계산서 작성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신고 업무 | 조세 불복 청구대리 | 벤처기업 확인 업무

# 돈이란 버는 것 못지않게 관리가 중요합니다



제대로 된 세무사사무소와 함께 하셔야만  
당신의 소중한 자산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세무문제는  
나일환세무사사무소가 책임지겠습니다.

나일환세무사사무소는 양질의 세금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언제든지 조세문제를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나일환세무사 약력**  
군산제일고 / 전북대 행정학과 / 군산대학교원 회계학과  
국세청 79급 공채(15년 근무) / 전주세무서 부가치세과 / 익산세무서 소득세과  
군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 군산세무서 재산세과(양도상속증여) / 공인중개사(14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군산지회 지문세무사 / 한국산업단지공단 군산지사 세무분야 전문가  
군산세무서 공평과세 위원회 위원

## 나일환세무사사무소

군산시 동국사길 5 (월명동 19-12)  
tel. (063)466-5566, 1766 fax. (063)466-5605

# 웃을 때마다 눈부신 치아 상상만해도!

너무 아름다운 미소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더욱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항상 성심을 다해 진료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끊임없이 노력하는  
좋은사람 좋은치과가  
되겠습니다.

Get a Smile.  
갯어스마일 -  
좋은사람 좋은치과에서  
제공하는  
프리미엄  
덴탈 케어 서비스

### 진료시간

- 평일:  
오전 9:20 - 오후 6:40
- 토요일:  
오전 9:20 - 오후 1:30
- 화요일 야간진료:  
오후 8:00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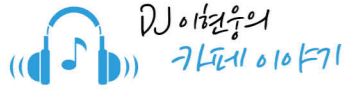


좋은사람  
좋은치과

Good People, Fine Dental

add. 전북 군산시 수송동 852\_2 청담빌딩 3F  
tel. 063\_466\_2875 fax. 063\_465\_2922





### 그 곳에 가면 진짜 DJ와 진짜 음악이 있다

#### <프로로그>

지곡동 549-2번지에 가면 카페 '음악이야기'가 있다. 그곳에는 '비틀즈'가 있고 '멜로디 가르도'가 있으며 '질은'이라는 독특한 이름의 인디 가수도 있다. 여러 단골들도 있으며, 언제나 혼자 와서 독한 칵테일을 마시는 '고독맨', 신청곡이 나올 때 평평 우는 '슬픈 남자'도 있다. 술값이 비싸다 하더라도 발길을 끊지 못하는 '투덜이 아저씨'도 있고 그룹 퀸의 음악을 좋아해서 우리끼리 '퀸'으로 통하는 손님도 있다. 이 연재는 카페 주인과 손님들의 이야기이다.



## 봄날은 간다

혹독한 겨울이 가고 봄이 찾아왔지만 카페는 여전히 손님이 없었습니다. 한 명도 오지 않거나 한 두 테이블에 그친 날도 많았습니다. 그 소수의 손님들 중에도 카페 일기장에 기록되는 손님들이 하나둘씩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당장 스피커 바뀌!

그날은 밖에서 일을 보느라 카페 출근이 늦어졌는데 직원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손님이 저를 찾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처음엔 지인인가 싶어 물었는데 아니었습니다. 찾는 이유가 무엇인지 물었더니 와보면 안다는 손님의 말을 전할 뿐이었습니다.

카페에 들어서자마자 직원은 1번 테이블에서 그 손님이 기다리고 계신다는 말을 전해주었습니다. 손님은 등을 돌린 채 벽 쪽을 향해 앉아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찾으셨다 들었습니다."

손님의 앞쪽에 가서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던 저는 약간 놀랐습니다. 손님은 깊이 파인 주름이 얼굴에 가득한 노인이었습니다. 짐작으로 80세는 족히 되어 보였습니다. 노신사 손님은 자리에서 일어서며 저를 찬찬히 살피더니 물었습니다.

"여기 주인장이요?"

거친 쉰 목소리였습니다. 노신사의 키가 6척은 되어 보일 정도로 컸습니다. 몸은 키에 비해 지나칠 만큼

마른 상태였고요. 그래서 그런지 매우 날카롭게 느껴졌습니다. 짧은 물음은 딱딱하다 못해 공격적으로 까지 느껴졌고요. 순간적으로 제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가게를 지켜야지 뭐하고 다니는 거요?"

나무라듯 목청을 높이는 통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아, 그게… 오늘 제가……."  
"다른 말 말고 이거나 틀어줘 봐!"

더듬거리는 말로 변명을 하기도 전에 신청 메모지를 불쑥 내미셨습니다. 아예 반말이시더군요. 하지만 이유나 상황이 어찌 됐든 음악을 들으러 온 손님이기에 신청곡을 들려주는 것이 최우선의 일이었습니다. 마음을 진정시키며 자세히 살펴본 메모지에는 페리 코모(Perry Como)의 <그링고스 기타(Gringo's Guitar)가 적혀 있었습니다.

페리 코모의 매력적인 저음의 목소리와 애니타 커퀴태트(Anita Kerr Quartet)의 코러스가 어우러진 노래가 애잔하게 가슴을 울렸습니다. 과박한 느낌의 노신사와 감미로운 음악의 부조화였습니다.

노래가 흐르는 동안 음악실 옆면 유리창을 통해 노신사를 훑쳐보았습니다. 노신사는 벽면을 물끄러미 바라보시는 듯 보였습니다. 어쩌면 바라본다기보다

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허공을 응시하는 모습에 가까웠습니다.

신청곡이 끝나고 다음 곡이 흐를 때 노신사는 자리에서 일어나 카운터를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저는 애써 눈길을 돌려 노신사의 움직임을 모른 척했습니다. 평소대로라면 배웅 인사를 했겠지만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카페에 다시 오는 것을 기대하고 싶지 않았던 게 솔직한 심정이었습니다.

퀸스레 LP 레코드를 뒤적거리며 출입문 열리는 소리가 들려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출입문보다 먼저 들려온 소리가 있었습니다. 고향소리였습니다. 반사적으로 소리 나는 쪽을 바라봤습니다. 음악실 정면에서 노신사 손님이 저를 바라보며 소리를 치고 계셨습니다.

음악소리 때문인지, 아님 노신사의 너무 빠른 말 때문인지, 무슨 내용인지는 확실히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기분이 언짢아졌습니다. 그분의 표정이나 손동작을 볼 때 유쾌해할 만한 내용이 아닐 것으로 짐작되었기 때문입니다. 피하기만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겠다 싶어 음악실을 나와 손님에게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들리지 않았습니다."

최대한 정중함을 유지하며 말을 했습니다.

"음악 소리가 너무 작아! 음악 소리가 가슴을 광광 울려야는데 그러지를 못해! 당장 스피커 바꿔!"

노신사는 과장과 역지를 담은 듯한 호통을 쳤습니다. 사실 음악 소리는 결코 그렇게 작지도 않았거든요. 스피커도 손님들로부터 좋은 평을 받고 있었고요. 하지만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얼른 그 상황이 지나가기만을 바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노신사는 조명이 어둡다, 쌍화차는 왜 없느냐, 주인이 왜 자리를 비우느냐는 등등의 몇 가지를 계속 나무라듯 지적했습니다. 저는 싫은 기색을 감추려 애쓰며 건성으로 대답만 열심히 할 뿐이었습니다.

"에이, 다시 오고 싶지 않아!"

노신사 손님은 그렇게 말하시고는 획 하니 몸을 돌려 출입문을 향했습니다. 저는 잘됐다 생각했습니다. 마지막 도리라도 해야겠다 싶어 출입문 밖까지 따라 나가 배웅 인사를 했습니다.

"뭐 하러 여기까지 나와? DJ가 체통이 있어야지!"

아, 어쩌란 말인가요! 노신사 손님은 계단을 내려가면서도 연신 혀를 차는 말투로 불만이 가득한 혼잣말을 쏟아냈습니다. 언짢아진 저는 노신사의 모습이 더는 보이지 않은 뒤에야 카페로 들어섰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시 오고 싶지 않다면 노신사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바라던 바라고 속으로 생각했죠. 음악실에 들어왔는데 상한 기분은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웬지 그분에 대한 느낌이 낯설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 하여 어디에선가 뵈 적이 있거나 어떤 기억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다시 오지는 않을 거라는 그 한 가지 예상만으로 그나마 위안이 되었습니다.

봄은 서서히 무르익어 갔고 카페에도 점점 다양한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노신사 손님의 기억은 희미해져 갔습니다. 그 일이 있는 지 몇 주나 지나갔지만 예상대로 카페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분은 단 한 번의 방문이 처음이자 마지막인 것으로 카페 일기장에 기록되는 듯싶었습니다.

- 다음 호에 계속됩니다 -



카페 '음악이야기' 대표DJ 이현웅  
군산시 신지길 66(지곡동) 010-4104-7159



# 지난 2월의 기억

지난 2월은 우리에게는 안타깝고 잔인했던 달로 기억 될 듯하다.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신종 바이러스 코로나19가 우리나라를 비롯해 세계 각국으로 퍼지면서 온 세상이 바이러스 전염의 공포에 빠졌다.

우리나라의 경우 예방과 통제, 철저한 방역과 검역 등으로 초기 감염자가 많지 않아 진정되는가 싶더니 대구에서 발생한 모 종교단체의 집단 발현으로 감염속도가 급속도로 확산되더니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가 며칠사이 5,000여명을 순식간에 넘어서고 급기야 사망자까지 발생했다.

코로나 사태는 보건당국의 긴장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감염에 대한 공포로 인해 다중 이용시설 기피와 각종 모임 취소 등으로 번지면서 식당이나 주점 등 영세한 소상공인들에게 영향이 미치면서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

그래서 우리의 기억 속에 2020년 2월은 안타깝고 잔인한 달로 기억이 될 듯하다.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2월이 우리 모두에게 안타깝고 잔인했던 달로 기억된다면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여론과 정치적으로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 있다.

흔히 정당 내에서 발생하는 '정무적 판단'이라는 말이 있다. 사전적 의미는 정치에 관한 사무적, 행정적인 것을 인식하여 특정한 논리나 기준 따위에 따라 판정을 내리는 인간의 사유 작용을 말하며, 흔히 법과 원칙에 따른 절차가 아니라 여론과 상황을 평가해 내리는 결정을 말한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내가 겪었던 일이다.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내가 소속된 정당 내에서 벌어졌다. 정당사상 최초로 후보자들에게 가점과 감점을 적용해 당내 경선을 실시했다.

불편하게도 나는 경선에서 승리했음에도 20%라는 감점 적용을 받아 패한 부당성을 호소하고 중앙당에 재심을 요구했으나 당시 비슷한 사례로 재심이 받아들여진 건이 있었음에도 재심이 거부되었다. 또한 코앞에

닥친 선거일로 인해 짧은 시간 내에 법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점도 있었다.

오십 평생 처음으로 변호사를 선임해 사법적 판단을 받아 보려했으나 이마저도 정당내의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소위 말하는 정무적 판단에 의해 억울한 피해를 보게 되었다.

이런 정무적 판단들이 지난 2월 우리지역에서 발생해 비슷한 경험을 겪은 나로서는 당사자들의 처한 상황과 아픔을 이해할 수 있었다.

청와대 전대변인 김의겸 후보가 고향 군산에서 출마선언을 했으나 자신에게 연루된 부동산 투기의혹으로 인해 한 달여 만인 2월 초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의 후보 사퇴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불출마를 선언했다.

또한 기초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이대우 후보 역시 민주당 공천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석연치 않은 성희롱 사건(?)에 연루되어 결국 민주당 전북도당의 공천배제 결정이 났고 이에 불복해 민주당을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출마를 했다.

두 사례를 보면 다분히 법과 원칙에 의한 절차라기보다는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국회의원 선거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정당의 정무적 판단에 의해 개인의 정치 인생에 크나큰 상처와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지난 2월은 안타깝고 잔인한 아픈 기억을 남긴 시간으로 기억될 듯싶다.



전 군산시의회의원 이복

# 누구의 탓인가?

자고 나면 '코로나 19'에 감염된 환자의 수가 급증하고 있다. 부디 이 글이 게재 될 시점에는 모든 상황이 종료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다.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이 바이러스가 지금 국내에서 창궐하고 있다. 한두 명씩 증가하던 확진자의 수가 급격히 늘어나게 된 배경에는 '신천지'라는 사이비종교가 있다.

야당에서는 여당과 정부의 탓이라고 연일 비방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감염된 환자들은 자신에게 바이러스를 옮긴 누군가를 탓하고 있을 것이다. 야당 지도자라는 사람은 굳이 '우한 폐렴'이라고 말하고, 어떤 이들은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그 지역 이름을 붙이며 은근히 조소하는 때도 있다. 심지어 그 지역에서 총선 예비 후보로 등록한 어느 정치인은 '문재인 폐렴'이라고도 한다.

기독교의 이단 사이비종교 '신천지'가 슈퍼 전파집단으로 부각 되면서 많은 사람이 그들의 실체와 비밀을 알게 되었고, 집단을 해체하라는 청와대 청원에 수십만 명의 국민이 동의하고 있다.

신천지교에서 포섭해 가는 사람 대부분은 기존 기독교인들이다. 신천지 '추수군'들은 기존 교회에 신분을 속이고 잠입하여 선한 성도로 위장하고 포섭대상을 물색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세뇌해 결국 자신들의 집단으로 데려간다.

그들이 발표한 공식 자료로, 신자의 수가 24만 명을 넘는다. 그렇다면 그 대부분이 이전에는 일반 기독교 신자였다는 것이다. 포섭되었다가 나온 다수의 사람들은 "그들이 아주 친절했고, 상처를 싸

매주고, 위로하고 격려해 주었다"라고 말한다. 물론 그런 호의는 포섭하기 위한 미끼일 뿐이다.

결국, 기성 교회에서 위로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고, 격려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상처받은 사람들이 그들을 따라간 것이다.

그렇다면 그 책임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기독교와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예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한국 교회는 사랑하고 나누고 섬기고 위로하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른 교회의 성도를 빼내어 자신의 교회 성도 숫자를 늘리기에 급급했고, 소외되고 상처받은 이웃을 쫓아낸 그 자리는 권력과 부를 가진 기득권층으로 채웠다.

대형 예배당 건물의 침탑은 바벨탑보다 더 높았고, 불법을 하기 위해서 권력자들과 손을 잡았다.

성도들이 땀 흘린 노동의 대가로 드린 헌금은 목회자들의 개인 주머니를 채웠고, 종교재벌을 만들어 자식에게 세습해 주는 일에 골몰했다.

그러는 사이 한편에서 소외당하던 힘없고 가진 것 없는 양들은 하나둘씩 늑대의 공격 대상이 되었고 소리 없이 끌려가기 시작했다. 목회자들은 자신들의 양이 끌려나가는 것을 보며 오히려 그들을 '이단에 넘어간 믿음 없는 자들'이라며 정죄하기에만 바빴다.

늑대의 무리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양들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는 자들이 그저

자신의 배만 채우는 사이, 양들은 그렇게 끌려나가고 그들의 가정은 파괴되고, 재림 예수의 영을 받았다는, 그래서 자신을 믿으면 이 땅에서 죽지 않고 영생하며 14만 4천의 왕 중 한 명이 되어서 세상을 다스리게 해 준다는 사이비종교 교주의 감언이설에 속아 인생을 망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이다.

자신의 양을 지키기 위해서는 늑대를 잡아야 한다. 그리고 울타리를 잘 쳐야 한다. 사랑의 울타리, 섬김의 울타리, 나눔의 울타리, 희생의 울타리를 3겹 4겹으로 안전하게 쳐야 한다.

한국 기독교회여, 이제는 회개할 때다. 중국을 탓하고, 사이비종교를 탓하고, 정치인을 탓하기 전에, 강단에서 행하는 하나님 팔이, 예수님 팔이, 복 판매꾼 짓을 멈춰라.

사이비와 이단이 판을 치고, 바이러스가 창궐한 죄의 책임이 자신에게 있음을 인정하고 벼슬을 입고 재를 뒤집어쓰고 진심으로 회개하자.

교회가 교회다워지면 이단과 사이비는 사라질 것이다.



수필가 / 청목하우징 대표 / 군산사료총판 진우상회 공동대표 / 시민·사회·환경 운동가 남대진



# 착한 건물주 캠페인

온 나라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3월2일 현재까지 확진자는 4,212 명이고 검사진행중인 사람은 33,799명, 사망자는 22명에 이르고 있다. 코로나바이러스는 2019년 12월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 발병한 유행성 질환. '우한 폐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코로나19'라고도 한다. 코로나바이러스의 변종에 의한 바이러스 성 질환이다. 초기에는 원인을 알 수 없는 호흡기 전염병으로만 알려졌으나 2003년 유행 했던 사스(SARS,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및 2012년 유행했던 메르스(MERS, 중증호흡기 증후군)과 같은 코로나바이러스의 신종인 것으로 2020년 1월 7일 밝혀졌다.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전 세계 여러 나라로 확산되자 1월 30일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선포했다. 한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예방하기 위한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렇게 치료하기도 힘든 바이러스로, 온 나라가 어려울 때 마침 전주 한옥마을에서 건물주 들의 자발적인 상가 임대료 인하 운동이 시작되었다. 이 상가 임대료 인하운동은 건물주 14명이 자진해서 3개월이상 임대료 10% 인하를 결정한 것을 시작으로 전통시장, 구도심, 대학가 등 전주시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고, 전주시와 건물주 들은 '코로나 19 극복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생선언문'을 발표 하였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가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국민들의 '십시일반 운동'이 큰 힘이 됐다"며 '착한 임대인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하였으며, 중소벤처 기업부(중기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임대료 인하 운동에 참여중인 임대인들이 326명, 9372개 점포(2월27일 기준)에 달한다고 3월 1일 밝혔다. 또 한 가맹수수료 인하에 동참한 프랜차이즈 업체도 9개에 달했다. 이들 업체는 ▲뜨봉이 ▲피자마루 ▲맘스터치 ▲커피베이 ▲이디야커피 ▲CU ▲GS25 ▲더벤티 ▲명륜진사갈비 등이다.

중기부는 "착한 임대인 운동을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지자체와 협업해 임대료 인하 캠페인을 추진하고 우수사례 발굴, 언론홍보, 정부포상, 정부는 지원사업으로 ▲상반기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을 상대로 소득세·법인세를 감면(인하액 50% 대상) ▲또 같은 시장에서 임대료 인하에 동참한 점포 규모가 20%를 넘으면 스프링클러 설치 등 화재 안전 패 키지를 제공 ▲가맹수수료를 인하한(3개월 이상, 10% 이상) 가맹본부를 상대로 정책자금 지원 시 금리우대, 지원한도 확대 혜택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주 한옥마을에서 시작한 '착한 건물주(착한임대인)' 캠페인은 서울 남대문시장, 동대문시 장, 인천, 대구, 부산, 광주, 제주, 경기 김포, 경기 수원 등 많은 건물주들이 '착한 건물주'운동에 동참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민족은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강한 유전적 특징을 내재하고 있다. 그 수많은 외침과 역경을 이겨내었고, 전쟁의 피해를 극복하고 50년 만에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되었고, 지금도 어려움을 스스로 극복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3월 101년전 3.1만세운동부터 오늘에 이르기 까지 대한민국의 한 사람임이 자랑스러운 일이다.

글 | 온승조(컬럼니스트)  
gsforum@hanmail.net

# 군산시민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어쩌다 예술'

군산시민예술촌(촌장 박양기)은 지역민들의 문화예술기회 제공을 위해 지난달 어쩌다예술 강사모집을 실시하였다.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경쟁률 속에서 총6개 분야(음악, 전통, 문학, 건강, 미술, 언론·방송)13개 강좌를 개설 하였으며, 타 기관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 분야를 선정하여 새로운 변화에 맞는 신규강좌를 개설하였다.

신규강의는 팬플루트, 캐릭터일러스트, 폐품을 활용한 토탈공예, 가족토탈공예, 유튜브영상제작이며, 다양한 분야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을 시민들이 원하는 강좌를 선택하여 수강신청을 완료 하였다.

수강생들이 선택한 강좌는 단기와 연속형 두 개의 유형 프로그램이 교육되며, 군산시민예술촌 소속으로 지역 축제와 발표회, 또는 전시회등에 출연하여 보람과 성취감을 가지게 될 것이다.

"어쩌다예술"교육 시작은 3월 초부터 시작하려 했으나, 현재 코로나19사태로 약 2주정도 늦춰진 3월 17일(화)부터 강좌가 실시될 예정이다. 그러나 추후 사태가 심각하게 확산이 되면 이마저도 늦춰질 예정이다.

군산시민예술촌은 언제나 군산시민의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있으며, 이번 코로나사태가 조속히 마무리되어 안전한 상황에 교육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라고 있다.



군산시민예술촌  
군산시 중정길 17 (구 우일극장)  
063-443-7725  
www.gsartzone.kr



# 기자의 약속

## 동계 청소년기자 인턴십 열려

1월 30일, 31일 달그락에서는 예비 청소년기자와 현역 청소년기자들이 모였다. 2020 동계 청소년기자 인턴십과정은 청소년 기자 활동의 이해, 취재계획 및 조별 피드백, 직업기자와 함께 배우는 취재의 기초와 실습으로 구성되었다. 4개조 20여명의 청소년들은 저마다의 취재 목표와 계획을 세웠다.

1조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따른 상가의 목소리를 담고자 계획표를 썼다. 상가에서는 예방수칙을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지, 경제적 타격은 어느정도로 실감하는지 등 현장에서 접할 수 있는 정보를 최대한 알아보고자 질문을 준비했다. 3조는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사태에 대해 청소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아야 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주변 학원들의 상황도 취재계획표에 적었다. 한 청소년 기자는 본인이 다니는 학원 원장님 인터뷰 섭외를 해보겠다고 전화를 거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렇게 각자의 토론으로 완성한 취재계획표를 발표하고 서로 피드백하는 시간을 가졌다. 주요 화두는 기사의 '신뢰성'을 높이는 것에는 무엇이 필요할까였다. 취재원을 섭외할 때 대표성이 있는지, 인터뷰가 아니어도 자료조사 만으로도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지 내용에 따라 취재방법도 바꾸어 보면서 다듬어 갔다. 가짜 뉴스에 대한 청소년 인식 설문조사, 군산 상인 인터뷰, 개학한 학교와 학원가의 일상, 날씨가 표현한 바이러스 예방지도도를 최종 기획하게 되었다.

2일차 '뉴스 취재의 기본과 기자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새전북신문 정성학기자의 강연과 취재계획 피드백 시간을 가

졌다. 강의는 문답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첫 순서로 '뉴스질은 왜 일어나는가?'였다. 기자님은 짧은 글 안에 내용을 담아야 하는 뉴스라는 매체의 한계성을 보아야 한다고 했다. 그 안에 기자가 알고 싶은 것과 독자가 궁금해 하는 것을 정확하게 담아야 한다는 점을 말했다. 또한 뉴스가 사실 전달 보다 시청자들의 이목에 더 집중해 쇼프로그램화 되어가고 있는 황색 저널리즘에 대한 현실을 설명했다. 그렇기 때문에 신문사에서는 기획이 사실에 근간했는지, 기자윤리강령에 어긋나는 것은 없는지 등의 퇴고와 편집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며, 사실이 확인된 정직한 보도가 사회와 맺은 '기자의 약속'이라고 했다. 두 번째 질문은 어떻게 사실인지 알고 취재할지에 대한 고민이었다. 계획단계에서부터 사실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취재 계획시 목적을 생각해 가제목을 많이 정하고, 사전 취재를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안내해주었다. 기자님은 청소년기자단들의 취재계획표를 하나씩 살피며 중복되는 결과가 예측되는 취재원은 없는지 등 청소년들에게 피드백 하는 시간도 가졌다.

현장취재에 나선 인턴십 참여자들은 지역 상가, 학교, 학원, 공공기관 등을 찾아 보도 사진을 촬영하고 인터뷰를 요청했다. 청소년들은 가짜 뉴스의 개념에 대해 먼저 찾아보았다. 그리고 몇몇 친구들에게 연락을 해 뉴스를 접하는 경로에 대한 문항을 만들었다. 4명의 청소년들은 서로에게 의견을 묻고 다듬으며 사실을 정확하게 듣기 위한 설문을 구성해 나갔다.

또 다른 청소년기자는 지역상가에 들어



가서 자신들이 이곳에 온 목적과 소속을 먼저 이야기 했다. 준비한 질문을 마친 후 사진을 신문에 실어도 되는지 등도 꼼꼼히 확인하고, 인터뷰에 응해주어서 고맙다는 인사도 빼먹지 않았다. 다른 길로 나섰지만 우연히 만난 2개조의 청소년들은 인터뷰 요청에 많은 거절을 당했다며 숙박, 요식업, 의류업 등 어떤 상가로 가야 각자 조의 취재 목적에 부합할지 서로 추천을 해주기도 했다.

취재 이후 기사를 구성하면서 인턴십 청소년기자 청소년들은 소감을 보내왔다. 기자라는 직업에 대해 처음 생각해보게 되었다는 청소년, 나부터 가짜뉴스를 검열하고 바른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는 다짐을 한 청소년, 사회 속에 아무렇지 않게 녹아있던 안전불감증과 도덕성 결여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었다는 청소년 등 참여자들은 사실을 바로 알고 전하겠다는 기자의 약속을 함께 다짐했다.



청소년자치연구소 및 달그락달그락 홈페이지 : <http://www.youthauto.net/>  
 페이스북: [www.facebook.com/youthautonomy/](https://www.facebook.com/youthautonomy/)  
 문의 : 063-465-8871, jbyar@daum.net

# 달그락 달그락

## “작고 단단한 물건이 부딪히는 소리”

앞의 달그락은 청소년들이 움직여서 내는 소리입니다.

뒤에 달그락은 청소년들의 움직임과 목소리로

사회가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소리입니다.



## Youth Movement



저희 연구소와 청소년자치공간 달그락달그락은 시민들의 후원으로 운영되는 비영리민간단체입니다.

후원계좌\_ **국민은행 247901-04-096683**  
 예금주\_ (사) 들꽃청소년세상



add. 54023 전북 군산시 월명로 475-1(월명동)  
 tel. 063) 465-8871 fax. 063) 466-8871  
 e-mail. jbyar@hanmail.net web. youthauto.net  
 cafe. <http://cafe.daum.net/ymcaleader>



## ■ 군산시, 코로나19 대응 지역경제 회복 총력

시민 안전과 지역경제 회복 위한 예산 신속 집행 피해 지원 등 정부 추경예산 900억원 규모 건의

군산시가 코로나19의 지역 확산을 차단하고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추경예산 편성, 신속집행을 통한 재정투입과 전방위적인 정부 추경예산 확보에 나선다. 시는 먼저 시민안전과 긴급지원을 위해 500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을 조기 편성할 계획이다. 이번 추경 예산안에는 코로나19 방역사업, 재난예방 장비·지원 확보 사업 등 코로나19 대응사업과 거점 직업훈련기관 지원사업, 전북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사업 부지매입 등 일자리 관련 사업예산을 집중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군산시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지역 내 추가 감염을 막고, 시민의 안전을 위해 선별진료소 운영에 필요한 방역약품, 열화상 감지카메라, 이동형 X-ray 등 예방물품 구입과 격리자 지원, 시민 홍보물 제작 등에 재난관리기금 및 특별교부세 약 6억원의 재정을 긴급 투입하여 코로나19 대응에 총력을 펼치고 있다. 또한 상반기 신속 집행 목표를 정부 목표인 57%보다 15% 높은 72%로 설정하고 재정투입을 통해 경기 회복을 견인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사업 조기발주, 선금집행 특례 활용, 추가경정 예산 성립전 사용 등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하여 사업비가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그 결과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소비·투자 부분에서 2월 말 기준 전북도 내 시·군 중 가장 높은 집행율을 보이고 있다. 경기 회복을 위한 마중물이 될 국가예산 확보에도 전방위적으로 나선다. 정부가 코로나 대응 추경예산 편성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군산시는 소상공인 피해지원, 경기 진작, 방역지원과 관련하여 총 23개, 약 900억원 규모의 국가예산 사업을 발굴하고 본격적인 확보 활동에 나선 방침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소상공인 피해지원 분야에 ▲소상공인 마케팅 지원사업 15억원, ▲위기기업 품질개선 및 검증기술 지원사업 30억원 ▲청년창업가 e-마켓 플레이스 구축사업 3억원 등이다. 경기진작 분야는 ▲군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사업 100억원 ▲고용위기 극복대응 희망근로사업 87억원 ▲일감 창출형 대체부품산업 생태계 구축사업 45억원 ▲동네문화카페 운영 16억원 등이다. 방역지원을 위해서도 ▲전통시장 및 상가 코로나 예방물품 지원사업 5억원, ▲복합 스마트그린룸 버스승강장 설치 사업 30억원 등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연매출액 1억2천만원 이하 소상공인에게만 지원되던 카드수수료를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지 확대 지원하고, 소상공인 특례보증 자금지원과 관내 기업체 피해접수 센터를 운영 중에 있다. 이 밖에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다중 이용업소인 음식점 및 숙박업소 등에 손 소독제 10,250여 개와 목욕장 및 숙박업소에 마스크 3,400여 개 배부를 완료했으며 추후 음식점에 마스크 1만5,400여개를 추가로 배부할 계획이다. 한편 확진자들이 거쳐 간 지역 상가 등에 대해서는 소독에 철저를 기하고 소독 완료 시 SNS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안전성을 적극 홍보하여 동선 공개로 인한 상가의 피해와 시민들의 불안감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강임준 시장은 “추가 확진자 발생으로 시민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더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어선 구축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경기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경제가 빨리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산시는 지난 2월 28일 발표된 정부의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중립대책’과 관련해 분야별 지원책에 대해 시민 홍보를 강화하고, 이와 연계하여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발굴도 지속적으로 힘 쓸 계획이다.

## ■ 해경, 섬 지역 코로나19 의심환자 이송훈련

섬 지역 코로나19 의심환자 발생에 대비한 훈련이 군산 앞바다에서 실시된다. 군산해양경찰서는 군산에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추가로 발생하는 등 감염 확산 우려가 계속되고 있어 도서지역 거주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코로나19 응급환자 이송 특별훈련’을 실시한다. 이번 훈련은 해경 상황실을 통해 “군산시 일부 섬에서 코로나19 의심 환자가 발생했다”는 모의 메시지를 경비함정에 전파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상황실의 지시를 받은 경비함정은 신속하게 현장으로 이동하면서 승선한 해경 모두는 방역복장을 착용하고 경비함 방역도 실시하게 된다. 또, 코로나19 의심환자와 해당지역의 공중보건의가 경비함에 승선하게 되면 경비함정에 마련된 응급구조소에서 ‘원격 의료시스템’을 통해 육상 의료진과 실시간 정보 교환하며 환자를 이송할 계획이다. 환자 상태를 살피는 해경 응급구조사 이외에 모든 출입이 통제되며, 항포구 도착 이후에도 제한된 인원만 환자의 하선(下船)을 돕고 119에 인계하는 절차로 진행될 예정이다. 조성철 군산해양경찰서장은 “이번 훈련은 코로나19 대응태세 점검인 동시에 현장의 전문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감염 대상에 안심할 수 있는 지역이 없는 만큼 해경도 도서지역민의 안전과 국민 보건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 ■ 옥구읍 자율방재단, 드론 방역

옥구읍 자율방재단(단장 문상돈)이 옥구읍 차량출입이 어려운 곳과 경로당, 종교시설, 학교 옥상 등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방역을 실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방역에 사용된 드론은 한번 공중에 떠면 4개의 분사노즐로 10L 분량의 소독제를 20분 이내에 1만㎡ 이상의 면적을 방역할 수 있는 장비로 손이 닿지 않는 곳까지 실시했다. 또한 방역 전 읍민들에게 방역사실을 알려 인체에 직접적인 노출이 없도록 유의하는 한편, 필요시 추가 방역을 실시할 계획이다. 방재단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옥구읍에서 총력으로 방역하는 것을 보고 힘을 모으기 위해 참여하게 되었고, 앞으로도 추가 방역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섭 옥구읍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지역주민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방역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 군산시, 경찰관기동대와 합동 특별방범

군산경찰서(총경 임상준)는 최근 경찰관기동대와 합동으로 취약지역 중심 가시적인 범죄예방활동을 전개하고 조폭 등 강력범죄 척결을 위해 다목적 순찰을 실시했다. 이날 활동은 수송지구대와 경찰관기동대 20명이 합동으로 수송동 롯데마트 주변 유흥가를 순찰하며, 주민들을 상대로 불안요인을 파악하고 특히 CCTV 설치되어 있지 않아 범죄발생이 우려되는 장소를 집중적으로 순찰했다. 임상준 서장은 “시민이 안전한 군산을 만들기 위해 범죄발생 취약지역에 경찰력을 집중하고, 지역사회와 공동체 치안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 군산소방서, 수난사고 대비 교육훈련

군산소방서(서장 구창덕)는 2일 바다와 근접한 군산지역의 수난구조를 위해 수난장비 일제점검과 숙달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해빙기를 맞아 수난사고 발생 시 신속한 인명구조를 위해 수난사고 현장에서 사용하는 구조장비 일체에 대한 점검 및 정비를 통해 날씨 변동에 따른 장비이상 유무확인 및 신규 구조대원에 대한 조작·숙달 훈련이 병행하여 실시했다. 특히 구조보트의 견인고리 결합상태, 각종 장비의 노후화 및 결빙으로 인한 장비불량, 적재장비 등의 상태를 파악하고, 육상재난보다 출동 건수가 적은 해상재난에 대응하는 기본장비인 선외기에 대하여 신규임용 구조대원을 대상으로 사용법 이론교육, 집중 숙달·반복 등을 통해 역량 강화훈련도 실시했다. 구창덕 소방서장은 “각종 수난사고는 초기 신속한 대처가 중요하다”며 “해빙기 철저한 준비태세를 통해 소중한 인명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전했다.



## ■ 이웃사랑 밑반찬 나눔 재개

군산시 자원봉사자들 동참

군산시는 지난 25일 저소득 취약계층 150세대에 밑반찬을 만들어 전달했다. 시는 독거노인 등 저소득 취약계층의 식생활을 보장하고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고자 읍면동의 추천을 받아 매월 두 번째 화요일 밑반찬을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반찬 조리는 군산시여성자원봉사회에서, 배달은 군산시여성자원봉사회, 군산시새마을회, 다미나봉사단, 군산자율방재단협의회, 군산시의용소방대연합회 등에서 실시했다. 반찬지원 사업은 군산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이후 한차례 연기하는 대책을 세운 바 있었다. 하지만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의 건강에 대한 우려와 조리봉사와 배달봉사를 지원해주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의 의지 덕분에 재개할 수 있게 됐다. 군산시여성자원봉사회 회원들은 밑반찬 조리 전 위생에 대한 주의사항을 준수하여 손소독제를 사용하고 마스크를 쓰는 등 철저한 위생관리 후에 봉사에 임했다. 이동연 여성가족과장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일로에 있는 중에도 희생정신을 발휘해 주신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감사사를 표한다”고 밝혔다.





2020 **03**

군산에서 펼쳐지는 축제 및 행사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캘린더입니다.  
 매일 새로운 행사를 찾아다니며 군산의 즐거움을 느껴보세요.  
 \*행사 및 공연일정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람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맥군(매거진군산)에서는 행사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행사를 맥군 행사 안내란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마감은 매월23일까지 입니다. jay0810@hanmail.net

# GUNSAN CALENDAR

SUN	MON	TUE	WED	THU	FRI	SAT
01	02	03	04	05	06	07
						레이나니 제1회 정기 연주회 2020년도 전라북도 미술대전 초대작가회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08	09	10	11	12	13	14
			바리톤 정원영 독창회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15	16	17	18	19	20	21
						아트스테이지소리 ep71: 데이브레이크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 비누로 꼼꼼하게 30초 이상

### [올바른 손씻기 6단계]



**올바른 손씻기와 기침예절로 많은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기침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고!



### [올바른 기침예절]



발행일 2019.11.5



우리들의 작은 관심으로  
희망과 행복을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모세스영아원  
군산시 쌍천로 82-13(개정동)  
(063) 452-4075

일맥원  
군산시 석치2길 14(문화동)  
(063) 462-2385

구세군군산목양원  
군산시 회현면 남군산로 332-45  
(063) 466-6088

구세군군산후생관  
군산시 월명로 514(신흥동)  
(063) 445-9331

신광모자원  
군산시 부곡로 19(나운동)  
(063) 462-7749

나눔의집  
군산시 옥구읍 옥정길 101-7  
(063) 464-9944

삼성애육원  
군산시 구영2길 1-2(신창동)  
(063) 445-5947

신광모자자립원  
군산시 한밭1길 35(나운동)  
(063) 461-8572

군산장애인종합복지관  
군산시 칠성안3길 37(산북동)  
(063) 466-7981







군산시는 전 행정력을 기울여  
코로나바이러스 확산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군산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협조와 동참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 수칙



손바닥, 손톱 밑  
비누로 꼼꼼하게 손씻기!



기침할 때  
옷소매로 가리기!



기침 등 호흡기증상자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  
(의료기관 방문 시 필수)



선별진료소\*(의료기관) 방문 시  
의료진에게 해외여행력 알리기

\*선별진료소 안내: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확인,  
관할보건소 또는 지역번호+120, 1339 문의



감염병이 의심될 때  
관할보건소 또는 1339,  
지역번호+120 상담